

2010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대사업

2010

동학농민혁명 대국민강좌 및 기행

주최 : (사) 동학민족통일회

후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 동학민족통일회

129

(사) 동학민족통일회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1403호
전화 732-5541 팩스 732-5402

20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대사업

2010

동학농민혁명 대국민강좌 및 기행

주최 : (사) 동학민족통일회

후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 동학민족통일회

목 차

발간사 / 상임의장 박남수

대국민강좌 (I)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과 현재성 / 강사 이이화

대국민강좌 (II)

동학농민혁명 후 천도교 민족운동 / 강사 조규태

대국민강좌 (III)

지역별 동학혁명의 연구성과와 과제 / 강사 성주현

경기지역 유적지 답사

여주·이천 지역 / 해설 성주현

발간사

20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업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강좌와 기행을 마치고

박 남 수 |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사회가 근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은 만민평등의 원리를 기반으로 척양척왜, 반외세 반봉건을 외쳤던 민족주의 운동이며 혁명이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개된 혁명이었다. 본회에서는 그동안 동학순례를 통하여 수많은 전적지들을 답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을 해왔다. 그 성과를 토대로 이번에는 동학 강좌와 기행, 순례를 시행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과 현재성」(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이후의 민족운동」(조규태, 한성대), 「지역동학농민혁명의 연구 성과와 과제」(성주현, 부천대)를 주제로 3차에 걸쳐 강좌를 마치고 그동안 답사 지역에서 소외되고,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경기지역의 유적지를 찾아 답사하였다.

경기지역은 수도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확실한 유적지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여주 이천지역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동학도들이 보은집회에 참여하였으며 해월 최시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들의 기포 후에는 음죽현을 중심으로 관아를 습격하였고 부



박 남 수 상 임 의 장

악산(현 설봉산)전투가 있었으며 세성산 전투 등 전국 동학농민혁명 대열에 합류하여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투지인 부악산(현 설봉산)과 해월선생 피체지 송골, 해월신사 향아설위 반포지 앵산동, 의암성사 도통전수지 전거론, 천도교여주교구 등 여주 이천지역 해월신사 유적지 탐방은 초기 동학혁명의 움직임과 그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동학 강좌 및 기행의 많은 참가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보다 폭넓게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동학민족통일회는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강좌와 기행을 통하여 1894년 전국 각지에서 일어섰던 동학도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대사업

동학농민혁명 대국민강좌 (I)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과 현재성

강사 : 이이화

(역사학자 /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과 현재성

이이화 / 역사학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이사장

1. 머리말

오늘날 인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패권주의 국가에 대해 약소국가들이 자주와 주권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학이 내세운 인권존중사상과 동학농민혁명에서 추구한 자주국가의 건설은 오늘날 역사성과 현재성의 중심 과제가 될 것이다.

2. 시대 배경 - 총체적 모순

1) 독점적 문벌정치의 파행

정조가 죽고 난 뒤 전개된 19세기는 문벌정치(세도정치)의 시대였다. 경주 김씨, 안동 김씨, 풍양조씨가 척족으로 군림하면서 이른 바, 전주 이씨, 반남 박씨, 연안 이씨, 달성 서씨 등 10대 문벌이 벼슬을 독점하면서 문벌정치를 이룩하였다.

기호(畿湖) 중심의 정치세력인 이들은 과거의 부정을 매개로 하여 정치권력을 쥐고 온갖 이권을 거머쥐었다. 그리하여 서북은 물론 영남 호남 인사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었다. 문벌정치는 이런 수단으로 60여 년을 지탱하였다.

19세기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등장하여 문벌정치를 타도하고 개혁정치를 폈다. 특히 당파의 소굴인 서원을 철폐해 불량한 유림을 억제하고 부정한 벼슬아치를 몰아내고 생활 개혁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지나치게 왕권강화에 열중한 나머지 종친과(宗親科)라는 파행의 과거를 빌어서 전주 이씨를 정계에 무리하게 등장시키고 경북 궁을 재건하면서 경제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끝내 신흥 문벌 척족 세력인 민씨들에게 정치권력을 넘겨주고 뒷전에서 술수와 음모를 일삼았다. 그리하여 왕실의 질서는 더욱 문란해지고 정치 세력은 갈등 속에서 나날을 지새웠다.

그리 해 민중봉기가 연달아 일어났다. 벼슬아치나 당파가 주도한 예전 병란의 성격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리하여 19세기를 “민란의 시대”라 불렀으며 이 민중반란을 두고 ‘민란떼’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다.

2) 신분사회의 해체와 농촌의 유리

1801년 조정에서는 관아에 딸린 공노비 6만 7천여 명을 해방시켰다. 조선후기부터 공사 노비를 가릴 것 없이 노비들은 도망을 쳤다. 그리하여 도망 노비를 잡으려고 노비추쇄도감(奴婢推刷都監)을 두고서 소란을 떠는 등 공공질서가 문란해졌다. 특히 공노비문서는 휴지와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조는 추쇄도감을 폐지하고 노비해방을 추진했으나 끝내 공노비의 전면적 해방을 단행하지 못하고 죽었다.

순조의 ‘노비윤음’에서는 그들의 처지가 불쌍해 풀어주는 것이라 했으나 그들을 옛날처럼 부려 공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해 공공 노역에 임금을 주고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창덕궁 앞에서 노비문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태울 때 그 연기가 며칠 동안 하늘을 덮었다고 하였다. 노비들은 이 불길과 연기를 보고 춤을 추며 환호하였다 한다. 이는 조선 노비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참고로 세계 노예해방의 진행과정을 참고로 보면, 프랑스 혁명기 노예 해방을 단

행했으나 1802년 나폴레옹이 노예제도를 부활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807년 노예 무역 폐지, 1833년 노예폐지법을 제정하였고 러시아에서는 1861년 노비해방령을 공포하였으며 미국에서는 1777년-1804년 남부 일부지역을 제외, 모든 주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였고, 남부에서 이를 거부하자 1861년 남북 내전을 통해 완전하게 실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공노비 해방을 단행한 뒤 1894년 농민군 집강소를 통해 밑으로부터 평등의 실천운동을 펼쳤고 갑오개혁을 통해 사노비의 해방을 단행했으나 노비소유주의 항거로 한 동안 부활하기도 하였다.(그 과정은 2부 참고할 것)

한편 온갖 특권을 누리는 양반들은 몰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재산이 없는 양반들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해 서당 훈장이나 풍수쟁이나 사주 관상쟁이로 전락하였다. 지배세력으로서 양반은 그 특권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 노비나 백정 같은 천민들은 살주계(殺主契) 살략계(殺掠契) 살반계(殺班契)와 같은 비밀결사체를 조직해 상전이나 벼슬아치나 양반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비밀결사는 곳곳에 횡행하였다.

한편 농민들은 중앙 벼슬아치와 수령과 구실아치의 부정을 통한 삼정의 문란으로 생계를 이룰 수 없었다. 더욱이 19세기 중반기 삼남지방의 극심한 자연재해로 기아와 역질로 죽은 사람들이 산야를 덮었다.

농민들은 처음에는 산골로 들어가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 주변으로 몰려와 유리민이 되었다. 하지만 끝내 1860년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농민들은 수령을 멍석말이로 지경 바깥으로 내치기도 하고 구실아치들은 잡아 죽이거나 집을 불태웠다. 이에 조정에서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듯했으나 농민항쟁이 누그러지자 다시 기능을 정지했다.

또 지주를 향해서는 소작료의 인하와 조세의 지주부담 등 항조운동 또는 도조거부운동을 줄기차게 벌였다.

3) 이양선의 출몰과 외세의 침투

초기 수렴청정을 한 정순대비와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배외정책을 폈다. 특히 국내에 침투한 천주교 선교사와 그 교도를 인간의 윤기를 어지럽히고 침략의 첩병이라고 하여 학살하였다. 그리해 수만 명의 천주교도가 학살되는 참사를 빚었다.

우리나라 연안 바다에는 이양선(異樣船)이 끊임없이 출몰하여 불법으로 상륙하기도 하고 연안을 측량하기도 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양선의 상륙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난파선의 경우, 구조를 해주기도 하고 일반 선박이라도 인도적 입장에서 식량 땀감 식수를 공급해 주었다.

마침내 1866년 미국상선 제네럴 셔먼호사건이 일어났다. 무장한 미국 상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진출했고 마구 총을 쏘면서 해적선처럼 주민과 감영의 병졸을 위협했다. 당시 평안감사 박규수는 이를 무마하려 했으나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한 부류인 그들의 오만한 행동에 분노한 평양 백성들은 그들을 모조리 죽였다.

뒤이어 야기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분명히 천주교 탄압과 상선침몰을 문책키 위해 침입하였다. 그들 군대는 강화도에 상륙해 수비병을 향해 도발하고 약탈을 일삼았다. 흥선대원군은 이를 이용해 척화정책을 펴면서 배외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서양세력과 천주교 또는 개화파는 더욱 설 자리를 잃었다.

수호 통상조약을 거부한 흥선대원군의 초기 배외정책은 일본에도 적용되었으나 청국과는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순을 범했다.

4) 동학의 창도와 피지배층의 결집

동학은 1861년 여러 모로 어수선한 시대 상황에서 태동되었다. 동학은 신분제 해체의 사회상, 삼남농민봉기 등 계속되는 밑으로부터의 변혁운동, 계속되는 천주교

탄압, 서양세력의 중국 침략 등의 시대배경을 엮고 창도되었다.

서자 출신 향반의 아들인 최제우는 새로운 정신세계와 신앙을 추구했으나 그 이론은 일정한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 또 일정한 수준에서 변혁적 분위기를 깔고 있었으나 철저한 이론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불교나 천주교와는 달리 보국종교 사회종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다. 또 유불선과 비결 등을 결합해 민중 신앙을 종합해 제시하였다.

그들 교도들은 조선시대 소외 받은 계층들이 모여들었다. 서자 상인 노비 빈민 그리고 몰락 양반과 향촌 지식인이 주축이 되어 교단을 형성하였다. 최제우는 여종을 하나는 며느리, 하나는 수양딸로 삼아 실천적 면모를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사불입(士不入) 반불입(班不入) 부불입(富不入)의 민중종교로 자리를 굳혔다.

최시형은 최제우의 가르침에 충실하면서 실천적 덕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신분문제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등에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동학은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탄압이 계속되자 이를 물리적 힘으로 해결하려는 교도들이 늘어났다.

1890년대에 들어 특히 충청도 내륙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서부지역 그리고 황해도 강원도 등지로 확산되고 서장옥 황하일 그리고 전봉준 김개남 등 지도자들이 입도하면서 변혁지향의 분위기가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동학은 단순한 종교단체에서 변혁집단으로 전이하는 과정을 밟았다.

5) 민씨 문벌정치와 강요된 개혁

민비의 척족세력은 흥선대원군을 몰아내고 다시 문벌제도정치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옛 문벌정치세력보다 더욱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고 나라와 사회를 유린하였다. 이들은 모든 이권을 거머쥐고 벼슬을 팔았다.

민씨들은 처음에는 노론계열 중심의 척사파와 손을 잡아 배외정책을 폈다. 또 서원의 복설 등 흥선대원군이 이룩한 개혁을 모조리 뒤돌려 놓았다. 또 청나라에 밀착

해 자주성을 더욱 상실했다. 보수반동의 행태를 유감없이 보인 것이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이룩된 개항은 민씨들이 주도하였다. 민씨들은 왜 개항을 단행했을까? 그들은 일본의 강압에 전쟁을 벌인 처지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일본의 위세를 핑계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강화도조약에 따라 개항을 단행한 뒤 외국세력과 결탁해 개발 등의 이권을 민씨들이 모조리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유림들은 민씨 정권에 등을 돌렸다. 또 권력 독점에 불만을 가진 문벌과 향반세력은 민씨를 적으로 삼았고 동학세력도 그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꼽았다.

6) 개화파의 등장과 외세의 이권 쟁탈

개화 세력은 실학의 전통을 이어 정치와 사회개혁에 뜻을 두기도 했으나 그 보다는 새로운 시대환경의 전개에 따라 신문물을 수용해 여러 분야의 개혁을 지향한 면이 두드러졌다. 이들 개화파는 초기에는 박규수를 중심으로 하여 노론계열의 청년 그룹이 그 계보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분명히 자생적 조직이었다.

하지만 개항 이후 연달아 통상조약이 이루어지고 외국 공사관이 서울에 주재하고 선교사들이 밀려오자 예전 청나라를 통해 들어오는 서양소개 서적을 탐독하는 수준을 벗어나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신문물을 직접 보고 듣고 접촉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일본이나 청나라에 시찰을 가거나 견학을 하기도 하고 사행으로 가서 새로운 문물을 접촉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외교관으로 파견되어 미국이나 유럽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초기의 개화파들은 조선을 구각(舊殼)을 벗기고 환골탈퇴의 신천지를 이룩해야 한다는 열정에 빠졌다. 그리하여 정치제도와 묵은 관습과 풍속, 그리고 과학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조국의 제도 문물은 모조리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새로운 개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이든 서양이든 그들의 힘을 빌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 결과 일본의 힘을 빌어서 갑신정변을 단행했으나 청국의 개입으로 일패도지했다.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들은 냉엄한 현실에 부딪혔다. 더욱이 우매한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해 절망감에 빠졌다. 그 뒤 후기 개화파들은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미국 등에 기대 개혁을 추진했고 때로는 고종과 민씨 정권을 동조세력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했다.

개항 이후 일본과 청국은 조선의 종주권 또는 경제적 이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으나 청국이 종주권 행사에 우위를 차지하였고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주도권을 차지했다. 개화파들은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쳤고 일본은 조선의 중립국화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갈등을 빚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열강은 불평등의 통상조약을 연달아 맺고 상품 수출의 기지로 삼았으며 조선의 이권을 움켜쥐려 경쟁했다. 곧 전차 전기 철도부설권, 광산개발권, 산림벌채권 등이었다. 그리하여 궁중과 부호들의 집에는 진주 양주 양복지 화장품 심지어 커피 과자 양주 등이 범람하였고 농촌에는 양곡 쇠가죽 등이 유출된 대가로 화장품 비누 등 생활 소모품이 유입되었다. 도시와 궁궐에는 전등이 가설되고 서울과 부산에는 전차가 놓여지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3. 농민혁명의 지향과 민족사적 의의

1) 폐정개혁과 갑오개혁

전주에서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자들과 관군의 현지 사령관인 홍계훈 사이에 1894년 5월 맺은 것으로 알려진 폐정개혁 12조가 있다. 그 <폐정개혁 12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묵은 혐의를 강그리 쓸어버리고 여러 정사에 협력할 것
1.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낱낱이 엄하게 징벌할 것
1. 횡포한 부호의 무리는 엄하게 징벌할 것
1. 불량한 유림과 양반 무리는 엄하게 징벌할 것
1. 노비문서는 불태워 없애버릴 것
1. 칠반천인(七般賤人, 일곱 종류의 천한 사람)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이 쓴 평량입(平涼笠, 패랭이)은 벗길 것
1. 청춘과부에게는 개가를 허락할 것
1. 무명의 잡세는 일체 부과하지 말 것
1. 관리 채용은 지벌(地閥, 지역 연고)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 왜(倭, 일본)와 간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할 것
1. 공사의 채무를 가리지 말고 기왕의 것은 소멸시킬 것
1. 토지는 고르게 나누어 짓게 할 것(오지영 동학사에 수록)

여기에는 첫째 탐관오리, 횡포한 부호, 불량한 유림과 양반을 징벌한다는 것, 둘째 노비와 칠반천인과 백정의 신분차별을 없애거나 개선하는 것, 셋째 고른 인재등용, 넷째 청춘과부의 개가, 다섯째 무명 잡세와 공사 채무의 해소, 여섯째 토지의 분작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 개혁안은 전주화약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일개 현지 사령관이 봉건제도의 골간인 신분과 토지문제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홍계훈에 보낸 농민군의 요구사항은 국가정책의 비리와 농민의 과중한 부담을 개혁해달라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그 화약의 조건을 이 요구조항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오지영 <동학사>의 초고본에는 화약조건이라 하지 않고 집강소의 강령(綱領)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집강소에서 농민군들이 개혁하려는 기본 항목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토지 개혁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6-7개월 진행된 집강소 활동으로 보아 토지문제는 손을 댈 기간이 아닐 것이다. 그런 탓으로 신분 타

파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달리 이보다 2개월 정도로 늦게 7월에 공포된 갑오개혁에는, 문벌과 반상을 타파하고 인재를 뽑아 쓴다는 것, 부녀의 재가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유에 맡긴다는 것, 공사 노비를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는 것, 역인 재인 백정을 모두 천인지위에서 벗긴다는 것 등의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농민군의 요구 사항인 조세 부채 토지 무역 등은 일단 항목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에는 농민군의 실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2) 신분해방운동- 양반 상놈, 노비 백정을 없애자

앞에서 본 대로 봉건체제를 받히던 신분문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심된 당면 과제였다. 조선후기에 들어 신분에 다른 계급 사이의 갈등과 저항이 사회의 통합기능을 저해하였다. 어떤 방식이나 제도로든 풀어야 하였다.

갑오개혁이 공포되자 농민군들은 처음에는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7월 15일 남원대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었고 전라감사 김학진과 관민상화책(官民相和策)을 약속한 뒤 실천항목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알려지자 노비들은 크게 요동을 쳐서 상전에게 항의하면서 풀려나기도 하였고 일부는 먹고 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일반천인과 백정들은 노비와 함께 민활하게 움직였다.

아무튼 천민들은 전봉준이 농민군을 이끌 초기 단계부터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항쟁의 과정에서 전위역할을 하였다. 전주화해를 이룩한 뒤 집강소 활동을 벌였다. 집강소는 농민자치조직이 아니라 통치조직이라고 해야 정당한 풀이일 것이다. 바로 전라감사 김학진이 뒤로 물러나고 일선행정은 전봉준 김개남 등 농민군 지도자들이 맡았고 군현 단위에서는 집강소 도소의 소임들이 수령을 골방에 들이 앉히고 구실아치를 부렸다.

집강소에서는 국가에 납입할 전세 군포 공물을 대신 받아 경비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군수전 등을 거두어 2차 봉기의 군수물자를 마련하였다. 호남 집강소는 지역

단위로 설치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인적 단위 또는 지역 단위로 설치해 제한적이거나 독자적 행정을 맡아 보았다.

집강소의 전위 행동대는 규율과 감독 그리고 경찰 역할을 맡은 성찰(省察)과 동몽(童蒙)이었다. 이들은 부정한 벼슬아치와 구실아치를 잡아 징치하기도 하였고 집강소의 규율을 어긴 자들을 감시하거나 적발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결혼 적령기인 양반집 딸을 짝어 강제로 혼인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래서 동몽군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전위조직인 ‘홍위병’에 비유될 만하였다.

한편 고창에서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한 흥낙관은 천민으로만 구성된 농민군 부대를 거느렸다. 그 천인은 재인패를 중심으로 노비 백정을 말한다. 또 김개남포에도 노비와 백정을 중심으로 한 천민부대가 크게 활동하였는데 동몽군이 그 주역이었다. 그리하여 천민부대의 활동은 아주 강력했고 신분 차별의 타파에 앞장섰던 것이다.

오지영은 집강소에서 수행한 일을 두고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소위 부자 빈자라는 것과 양반 상놈, 상전 종놈, 적자 서자 따위 모든 차별적 명색은 그림자도 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하여 세상 사람들은 동학군의 별명을 지어 부르기를 나라에 역적이요 유도에 난적이요 부자에 강도요 양반에게 원수라고 하는 것이며 심한 즉 양반의 뒤를 끊으려고 양반의 불알까지 까는 흉악한 놈들이란 말까지 떠돌았었다.

당시 떠도는 말을 아주 사실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적당이 모두 천인 노예여서 양반과 사족을 가장 미워하였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노비로 도둑을 따르는 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록 도둑을 따르지 않는 자도 모두 도둑들에 묶여 상전을 겁주었다. 그래서 노비문서를 불태워 강제로 해방하여 양인으로 만들게 하였다. 혹은 그 주인을 결박해서 주리를 틀고 매질을 하였다. 노비를 둔 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노비문서를 태워 그 화(禍)를 풀었다. 순박한 노비들이 더러 태우지

말기를 원하였지만 기세가 원체 거세어 노비 상전들이 더욱 두려워하였다. 혹 사족이나 노비 상전들이 노비와 함께 도둑을 따르는 자들은 서로 집강이라 불러 그 법을 따랐다. 백정 재인들이 평민 사족과 맞절을 하자 사람들은 더욱 이를 갈았다.

여기에서는 노비들의 처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서로 접장이라 불러 평등을 구현하려 하였다. 이는 당시의 사회를 평등으로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일은 집강소가 있는 곳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충청도 홍성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례를 보면 홍주군(지금의 홍성) 갈산리 안동 김씨 집의 종으로 있던 문천검이란 사람과 이승범이란 사람이 자기 상전인 김씨를 대추나무에 발가벗겨 매달고 불알을 쫓았다고 한다.

이것은 평소에 그 양반의 횡포한 유세 아래 울던 민중이 양반 개인을 징벌하는 동시에 그 양반의 종자가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 불알을 받은 것이다. 민중이 양반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런 사실을 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신분문제와 함께 청춘과부 등 여성의 처지 개선은 농민군들의 상호 호칭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누누나 상호 호칭을 짓장(接長)으로 통일하였다. 접장은 상전과 종, 수령과 아전, 양반과 평민, 남자와 여자, 어른과 어린이 등 반상과 귀천과 상하와 남녀와 장유를 아울러 존경의 접속사로 불려진 것이다.

접장은 본디 동학 교단에서 시작한 상호의 존칭이었으나 이를 광범하게 적용된 시기는 집강소 기간이었던 것이다. 보기를 들면 어른은 어린이에 동동접장, 남자는 여자에게 부인접장으로 불렸다. 이 접장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한 1914년에 '동무'라 호칭한 연대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이는 신분해방운동, 양성평등운동, 연령에 따른 권위타파운동의 단초였던 셈이다.

3) 빈민구제와 토지문제

집강소 활동 기간, 농민군들이 열성적으로 전개한 항목은 빈민구제일 것이다. 곧

빈민을 구휼하는 일이었다. 전봉준은 지주와 부호들에게 강제로 돈과 쌀을 빼앗지 않았다. 그 대신 부호들로부터 시세보다 싼 값으로 쌀을 사서 시세보다 싼 값으로 빈민들에게 되팔았다. 부호들에게는 먹고 남는 식량이지만 빈민들에게는 거저 얻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대가를 지불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쌀을 받을 적에는 어김 없이 표지(標紙, 어음과 같이 뒷날 지불을 약속하는 증표)를 발행했다. 전봉준 관할의 집강소에서는 이를 어김없이 실행한 것으로 보이나 김개남 관할의 집강소에서는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것을 “손상익하”(損上益下, 위를 덜어 아래를 보태 줌)라 부른다.

위에서 보이는 대로 고리채 정리를 내걸었으나 구체적 사례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고리채는 장리(長利)라 표현되는 고율의 이자를 말한다. 적어도 빚을 내서 1년 뒤에 갚는다면 원금의 배쯤 물어야 하는 민간 금융의 관례이다. 이는 자연스레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가장 봉건체제의 주요한 버팀목이 되었던 토지문제이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단순하지 않았다. 12개조 폐정개혁에서 말하는 “토지의 평균 분작”은 그 개념규정이 분명하지 않다. 토지의 경작권을 고루 분배한다는 뜻인지 토지 소유권을 고루 갖게 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이 조항은 결코 신분제도보다 더욱 정부와 쉽게 동의할 사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일개 현지 사령관이 함부로 합의할 사항이 아니었다. 왕조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개화파가 일제와 야합해 추진한 갑오개혁에도 이 조항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농민군이 지향한 가장 핵심적 개혁조항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느슨한 사적 소유, 불분명한 재산권 인정 관계에서 이를 제외하고서는 밑으로부터의 변혁은 알맹이가 빠지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 사례가 거의 없다. 짧은 집강소 기간에 실현할 수 없는 시간적 조건에도 그 원인이 있겠다.

4) 기독교의 공인과 이권 침탈

외국의 이권 침탈의 문제는 개항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척사파들은 서학의 금지와 함께 이를 과감하게 배격하라고 조정에 요구하였다. 그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 제국주의적 침탈에 맞서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다. 동학 교단도 척사파의 이런 의지에 동의하였다. 그들은 서구의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무역관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동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 시기 아시아에서도 후발주자인 조선은 강요에 따라 가장 불평등 통상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미국 선교사 앨런은 갑신정변 때 부상을 당한 민영익을 치료해 준 뒤 민비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궁중의 어의가 되어 전등 전화 수도 가설권 등 이권을 따냈다. 후발주자인 미국은 많은 이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미국은 경인철도 부설권을 양도받았다가 일본에 팔아먹었으며 1895년에는 노다지금광인 운산금광 채굴권을 따내 40년 동안 1,4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챙겼다.

독일인 뮐렌도르프는 1882년부터 1885년까지 재정고문이 되어 무지한 후진국 조선의 재정과 외교를 주물렀다. 그는 처음에는 중국의 이익, 다음에는 독일의 이익을 챙기다가 마지막에는 조선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힘을 기울이다가 쫓겨났다. 이들은 기묘한 술수와 회유 협박 사기의 방법으로 고종과 민비와 민씨들을 주물렀다.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더 들어 보자. 1889년 아시아에서는 가장 늦게 조선 조정에서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맺었다. 그 조약 항목 속에 일반적인 통상 외교 말고 새로운 항목이 삽입되었다. 곧 통상조약에서 가장 금기가 되는 아편의 수입권과 함께 기독교 선교권을 인정하는 항목이 들어간 것이다.

프랑스는 천주교의 자유 선교권을 위해 이 조항을 넣었다. 오랜 동안 탄압을 가하였던 천주교를 공인한 것이다. 알렌이 이 조항을 넣게 공작한 뜻은 바로 미국이 개신교 선교권을 자동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끝내 천주교와 개신교

는 척사파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기묘하게도 영국이 중국을 아편시장으로 만든 것처럼 조선의 아편 수입과 함께 기독교의 선교가 공인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던 불교는 아직도 도성에 절을 지을 수 없었으며 승려들의 도성출입도 허용되지 않았다. 더욱이 동학은 여전히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율에 따라 공인을 받지 못했다.

5) 외국상품 불매운동과 외국세력 추방운동

이 땅에 사치품을 중심으로 한 외국 상품이 범람하자 불매운동이 세차게 벌어졌다. 더욱이 동학교도들은 그 불매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1893년 2월 광화문 앞에 모여 교조신원을 요구했으나 고종은 “이단을 내세워 야료를 부리는 자들은 선비로 대우할 수 없으며 나라 법에 따라 죽음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지시를 내려 동학의 승인을 거부했다.

그 뒤 서울에서는 서양과 일본 배척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기독교를 배척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칩락세력을 몰아내지는 방문이 프랑스공사관 미국공사관 일본공사관을 비롯해 미국인 교회당, 학당 등 전국 곳곳에 붙여졌다.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분명하게 내걸었다.

프랑스공사관에서는 본국에 프랑스 군함 3척을 인천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과 일본 공사관에서도 그 대책에 부신했다. 그 주동자를 일본공사관에서는 전라도 동학당 6만여 명이 서울로 향해 올라갔다고 보고했으며 동경일일신문은 전주에서 그 당류 4천여 명이 모여 외국 선교사와 상인은 모두 물러가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삼례집회를 두고 정세를 분석한 내용들일 것이다.

연이어 3월에 보은과 원평에서 대대적 집회를 열었다. 보은집회에서 보낸 통고문에는 “지금 왜양의 도둑이 서울에 들어 있어 큰 난리가 극도에 달해 있다. 진실로 지금의 국도를 보건대 끝내 오랑캐의 소굴이 되었다. 왜양을 쫓아 큰 은혜를 갚는

의리를 본받고자한다”고 선언했다.

보은집회에서는 수만 명의 교도들이 모여들어 서양세력과 일본세력을 배척한다는 척양(斥洋斥倭)의 기치를 내걸었다. 또 조정을 향해 크게 네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교조 최제우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는 것, 둘째 교도의 탄압을 중지하라는 것, 셋째 외국의 세력은 물러가라는 것, 넷째 외국 상품을 배격하고 목면(무명)을 입으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것 등이다.

음성 감곡면 사곡리에 살던 김영상의 <울산일기>에 따르면, 일본과 서양세력을 배척할 것을 앞에 내걸고 민씨 세도를 쫓아낼 것, 호별 단위로 거두는 군포세를 없앨 것, 악화인 당오전을 없앨 것, 각 고을의 세미를 바르게 매길 것, 무명옷을 입고 외국의 물품을 팔지 못하게 할 것 등 민생문제를 주심으로 그 개선을 요구하였다 한다.

원평집회를 주도한 농민군 지도자들의 의식은 초기단계부터 외세배격과 외국 상품거부 의지는 더욱 강렬했다. 보은집회에서 이들 남접의 강경한 요구를 뒤늦게 동조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접의 이런 표방은 바로 농민전쟁의 중심 지향점이 되었던 것이다.

6) 반봉건 반침략 혁명의 과정

1894년 3월에 전봉준 등 지도부는 고부봉기에 이어 무장에서 정식으로 선전포고하였다. 전라도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군들은 백산에서 총집결하여 부서를 결정하고 향전을 다짐하였다. 동학농민군들은 규율을 엄히 하고 민심을 끌이 들이려 하였는데 실제로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농민봉기 첫 단계에는 고부 관아를 다시 점령하고 황토현에서 전라감영군을 쳐부셨다. 그러자 중앙에서는 장위영군 800명을 파견하였는데 이들 군사들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고을을 휩쓸며 횡포를 부렸다. 농민군들은 중앙군을 유인하여 장성에서 관군 선발대를 격파하였다. 이어 4월 27일 전라감영을 점령하였다.

전라감영을 차지한 농민군들은 중앙군 사령관인 홍계훈과 협약을 맺었다. 홍계훈은 폐정을 중앙에 보고하여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를 오지영의 <동학사>에서는 12개 폐정 개혁을 약속하였다고 하나 신분제도 토지제도 개혁과 여러 정황으로 보아 12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는 당시 농민들의 여러 요구조건을 뭉뚱그려 적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농민군은 일단 후퇴하여 각지에 집강소를 차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폐정의 개혁에 나섰다.

1차 봉기는 전라도 농민군들이 주도하였고 충청도와 경상도의 농민군들이 측면에서 호응하였다. 집강소기간에도 이런 구도와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전쟁의 중심권이 아니었던 충청도의 서쪽해안지대와 경상도의 남쪽지대에서도 별도로 봉기하여 소규모의 집강소활동을 전개하였다. 집강소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농민통치기구였고 집강소활동은 반봉건운동이었다.

2차 봉기는 반침략 전쟁이었다. 민씨 정권은 농민봉기가 일어나자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일본군도 텐진조약의 약조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였다. 일본군은 6월 21일 불법으로 경복궁을 점령하여 고종을 유폐하는 등 주권을 유린한 뒤에 군사 지휘권을 거머쥐었다. 그래서 나라는 반식민지 상태로 접어들었다. 일본군은 청일전쟁을 유발하였다. 청일전쟁이 경기도 평안도에서 전개될 때인 7월 무렵에 농민봉기는 산발적이기는 하나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로 확산되었다.

이해 9월 전봉준 등은 전라도 농민군에게 동원령을 내려 접경지대인 삼례로 모이게 하였다. 전봉준은 무기 등 준비를 갖추고 또 추수기를 기다렸다가 이때에 일본과 정면 승부를 겨루려고 모든 농민군을 집결케 하였던 것이다. 전봉준은 삼례에 전라도 창의대중소(倡義大衆所)를 두었다.

삼례에 많은 농민군들이 모여들었다. 전봉준은 여기에서 머물면서 김개남 등 농민군 지도자들에게 호응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늦가을의 추위에 대비하여 짚신을 만들고 옷을 짓게 하였으며 양곡을 비축하고 대나무로 죽창을 만들었으며 전라감사 김학진의 협조로 위봉산의 무기를 거두어들였다. 한편 충청도에 전령을 띄워 양곡과 짚신 연초 등을 준비해두라고 요청도 하였다. 흥선대원군과 연계를 모색하였고

북접의 호응을 요구하는 밀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전봉준은 마침내 북접의 호응을 얻었다.

교단 지도자들은 관군들이 계속 동학교도들을 탄압하고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더욱 정도를 더해 가고 전국의 교도들이 봉기 명령을 내려달라는 빗발치는 재촉을 받았다. 그 동안 최시형은 신중하게 정세를 관망하며 때를 기다렸다. 이때 교단 지도부에서도 전면적 봉기를 주장하였다. 최시형은 마침내 “앉아서 죽겠는가?”라고 분연히 외치고 전국에 대동원령을 내렸다.

최시형의 대동원령은 강원도 경상도 황해도 등지의 농민군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냈다. 그리고 농민전쟁을 전국적 규모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동안 이들 지역 동학교도들은 대접소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모인 농민군이 10만 명이라고도 한다. 북접 농민군들은 손병희 지휘아래 논산으로 집결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은 다른 지역의 농민군이 논산 공주로 합류하는 길을 완전 통제하였다. 그런 탓으로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해안지대의 농민군은 오던 길로 뒤돌아 갔다.

전봉준은 북접의 연합전선 동의에 고무되어 직속부대 4천명을 이끌고 여산 강경을 거쳐 은진 논산으로 북상하였다. 충청북도와 전라도의 농민군이 주축이 된 두 세력은 논산에서 만나 굳게 손을 잡고 이유상 등 현지 농민군들과 함께 노성 공주로 진격하였다. 이 무렵에는 청산 논산-삼례 논산의 주력전선 이외의 지역에서 지역성을 띠고 곳곳에서 봉기하였다.

공주에서 농민군 연합부대와 관군 일본군 연합부대는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20일쯤 대치하거나 전투를 벌였는데 농민군들은 폭설이 내리고 추운 날씨인데도 솜옷을 입지 못하고 맨발로 이리 뒤고 저리 뛰었다. 관군 일선 지휘자는, 저 몇 만 명의 비류들이 4-50리에 뻗쳐 포위해 왔다고 전제하고 그 정경을 이렇게 적었다.

길이 있으면 빼앗고 높은 봉우리를 다투어 차지하였다. 동쪽에서 소리치면 서쪽에서 달려가고 왼쪽에서 번쩍이다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와 깃발을 휘두르고 북을 울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저 올라 왔다. 저네들은 무슨 의리이며 저네들은 무슨 담력인가?
그들의 행동을 말하고 생각하니 뼈가 떨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공산초비기)

동학농민군은 11월 9일 우금재 전투에서 일본군의 대포와 기관총 따위 신무기 앞에 패배하고 말았다. 전봉준은 노성으로 후퇴하여 우리의 군사와 구실아치와 시민(장사꾼)에게 “나라를 위해 힘을 합하자”는 고시의 글을 피를 토하듯 띄웠다. 그 뒤 잔여 농민군들은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면서 뿔뿔이 흩어져 갔다.

우리 연구자들은 보통 1차 봉기는 반봉건, 2차 봉기는 반침략으로 그 성격을 구분하나 그 기본 흐름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두 슬로건이 동시에 추구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가장 척사운동을 열렬히 벌였던 양반 유생들은 농민군을 역적으로 몰면서 의병을 일으키지 않고 골방에 숨어 지냈다. 이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연출한 것이다.

7) 민족사적 의의

오늘날 이들의 활동을 두고 때로는 ‘농민전쟁’ 때로는 ‘농민혁명’이라 섞어 부르고 있다. 1차 봉기는 봉건체제의 모순을 척결하려는 밑으로부터의 변혁운동이었으므로 내전에 해당되며 2차 봉기는 일본 등 침략세력을 구축하려는 봉기였으므로 국제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전쟁이었다.

한편 그 전체 지향을 보면 근본적으로 신분평등, 사회개혁, 토지개혁, 민씨 정권의 타도, 부정부패의 척결 등에 두었고 제국주의적 침략세력을 몰아내고 자주국가를 지향했기에 혁명운동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 박애에 토대를 두었다면 동학농민혁명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중을 표방한 인권 그리고 자주국가의 지향에 기본을 두었다.

아무튼 농민전쟁은 일본군 관군과 물리적 전투를 벌인 탓으로 많은 희생자를 냈다. 그 참여 인원은 1백만 명, 희생자는 10여만 명으로 보고 있다. 희생자의 경우, 박은식은 30여만 명(한국통사), 표영삼은 5-6만 명으로 보고 있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참고해 보면, 1848년 불길을 당긴 뒤 1871년 파리 코뮌을 발표하고 노동자의 권익, 여성의 권리 그리고 청소년 교육 균등을 외치자 보수파는 이 관련자 1만 5천여 명을 1주일 사이에 처형하고 나머지 관련자는 해외로 추방하였다.

농민전쟁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프랑스 혁명과는 달리 연속선상에 있지 않았으나 일제에 저항하는 의병항쟁에 가담하였고 식민지 시기 삼일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뒤 민족운동에 나섰으며 해방 뒤에는 새로운 세대에 의한 민주운동으로 민족사의 맥을 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민혁명 시기 제기되었던 신분평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동기에서건 완전히 실현되었다. 양반의 특권은 물론 상인 노비의 불평등 관계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를 이룩하였다. 유럽과 인도 등 관습으로라도 귀족 또는 천민이 존재하는 사회보다 훨씬 진전되어있다. 다만 백정만이 식민지 시기 형평운동을 통해 관습을 깨려는 활동을 전개했으나 해방 뒤 이도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

농민군 세력이 추구한 토지의 평균 균작과 지주제 문제는 식민지 시기 그대로 존재했으나 해방 뒤 남쪽의 경우, 1949년 농지개혁이 단행되어 사라졌으며 북쪽의 경우에는 토지의 몰수와 분배를 통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둘 것은 올해는 일제의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 100년을 맞아해 동학농민혁명이 최초로 본격적으로 반일의 가치를 들었다는 점, 그 연속선상에 있는 삼일운동이 모든 민족의 역량이 결집되었다는 점에서 묵은 얘기가 아니라 역사성과 현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0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대사업

동학농민혁명 대국민강좌 (Ⅱ)

동학농민혁명 후 동학-천도교 민족운동

강사 : 조 규 태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동학농민혁명 후 동학·천도교의 민족운동

조규태(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1. 천도교의 성립과 실력양성운동

동학교단은 동학농민운동을 통하여 조선의 정치·경제·사회적 폐단을 개혁하고 능력에 따른 인재의 등용, 토지의 균분, 신분의 평등 등이 구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이루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려 하였다. 그러나 동학교단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인들이 큰 희생을 치르는 아픔을 겪었다. 게다가 1898년 동학의 제2세 교주인 최시형이 관에 잡혀 처형됨으로써 다시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동학교단의 안정을 이룬 것은 손병희(孫秉熙)였다. 그는 동학농민운동 후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지역에 새로 포교를 확대함으로써 교세를 신장하였다.¹⁾ 그리고 동학의 재건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박인호(朴寅浩)를 자파로 끌어들였다. 이러한 토대에 입각하여 그는 1900년 교권을 장악하였다.²⁾

교권을 잡은 손병희는 문명개화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하였다. 그는 1901년 서구

1)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1집, 1990, 58·59쪽.

2)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서울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9·20쪽.

문명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에 가려고 출국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일본에 체류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조희연(趙曦淵), 오세창(吳世昌), 권동진(權東鎭), 양한묵(梁漢默) 등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며 문명개화사상을 수용하였다. 그 후 손병희는 1902년 24명의 동학 청년들을 일본에 데려와 교오토오(京都)의 부립중학교(府立中學校)에서 학습시켰다. 또한 그는 「명리전(明理傳)」(1903), 「삼전론(三戰論)」(1903) 등 문명개화사상을 담고 있는 논설을 작성하여 교인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리고 러·일전쟁이 발생하자 손병희는 일본이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진보회의 설립을 통한 친일적 문명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³⁾

그런데 진보회와 일진회의 통합 후, 이용구 등 일부의 동학교인들은 일진회의 정치적 힘에 의지하여 위세를 부리고, 심지어 ‘을사조약’의 체결을 촉구하는 반민족적인 행위를 벌였다. 이는 비난적인 여론을 발생시켰고, 동학교인들이 의병으로부터 살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 동학의 명칭을 천도교로 바꾸었다. 손병희는 동학교인들에게 일진회 활동을 하지 말고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손병희는 1906년 9월 이에 응하지 않는 이용구·송병준 등의 교인들을 출교시켰다. 이후 손병희는 교인의 이탈과 교회재산의 축소 속에서 천도교단의 안정화에 노력하였다.

천도교의 창건 후 천도교단은 「천도교대헌(天道敎大憲)」(1906)을 반포하여 중앙총부와 지방교구를 설치하는 등 교제를 근대화 하였다. 그리고 「대종정의(大宗正義)」(1907) 등 근대적인 교리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교리강습서 등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동학사상 외에도 근대적인 지식과 문명개화사상을 교육하였다. 한편 천도교는 1906년 6월 『만세보』를 창간하여 인민의 계몽에도 힘을 쏟았다.

경술국치 후 천도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1910년에

3) 조규태, 「일제의 한국강점과 동학계열의 변화」, 『한국사연구』114, 2001.

27,760호가 입교하였고, 1911년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4만여 호가 새로 입교하였다. 1916년에는 시천교(侍天敎)에서 이탈하여 중앙시천교회를 이끌던 권병덕(權秉惠)계의 교인들이 대거 천도교에 입교하였다. 1916년 경 천도교의 교인수는 무려 100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평북의 교인수는 341,139명, 함남의 교인수는 118,149명에 이르렀다.⁴⁾

천도교는 1910년대 학교의 운영을 통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12월 재정난으로 폐교위기에 처해있던 보성전문학교·보성중학교·보성소학교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동덕여학교(同德女學校)·문창학교(文昌學校)·보창학교(普昌學校)와 양덕여호보통소학교(養德女湖普通小學校)·오성학교, 대구의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교남학교(峯南學校), 청주의 중학학교(宗學學校)와 청북학교(靑北學校), 평북 선천의 보명학교(普明學校) 등을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였다.⁵⁾ 이처럼 교육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천도교단은 학생들에게 천도교리와 사상을 교육함으로써 포교의 확대와 교세의 신장을 꾀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근대적인 지식과 사상을 교육함으로써 이들에게 문명개회사상을 전파하며 이들의 민족적 각성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한편, 천도교인 중에는 천도교의 문명개화노선을 비판하고, 동학의 항일노선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컨대 최시형의 아들인 최동희(崔東羲)는 1916년 손병희에게 동학세력을 결집한 후 동학의 노선을 좇아 항일운동을 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⁶⁾

또 이종일(李鍾一) 등은 1912년 12월 보성사 내에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民族文化守護運動本部)를 설치하고 1913년 강연회를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무기

4)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58-60쪽.

5)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65쪽.

6) 최정간, 『해월 최시형가의 사람들』(웅진출판, 1994), 168·169쪽.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65쪽.

의 구입방안을 협의하였으며, 1914년 5월에는 군자금 수백원을 모집하여 대한독립 의군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종일 등은 1914년 8월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민족문화수호운동본부를 천도구국단(天道救國團)으로 발전시킨 후 1916에서 1918년까지 무장봉기를 계획하였다고 한다.⁷⁾

2. 천도교의 3·1운동

1) 중앙총부의 3·1운동 주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식민지 국가의 독립문제 등이 제기되자, 천도교의 간부인 권동진, 오세창, 최린, 손병희 등은 국제정세를 예의(銳意) 주시하였다. 천도교 중앙총부의 도사(道師) 권동진은 1918년 말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에서 미국 윌슨이 제기한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조항을 보고 조선도 민족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오세창, 최린, 손병희를 만나 한국의 자결(自決)을 획득하기 위한 운동을 하자고 협의하여 의견을 한 데 모을 수 있었다.⁸⁾

이들은 착수 직후인 1919년 12월 말에는 자율적 행정, 즉 자치를 얻기 위한 운동을 하려고 작정하였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 1919년 봄 천도교의 대표를 도오교으로 파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1919년 1월 중순 상해와 연해주의 교포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자를 보내어 독립운동을 하기로 하였다는 소식과 일본에서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당시까지는

7)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배경」, 『대한민국임시정부사』(집문당, 1982), 21-23쪽.

8) 조규태, 「천도교와 3·1운동-천도교의 역할과 지방 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도서출판선인, 2006), 15-44쪽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1990, 권동진·오세창·최린·손병희 등의 신문조서 참조.

이들은 독립선언이 아닌 독립청원의 방식의 운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손병희는 박영효(朴永孝)·윤치호(尹致昊)를 만나 독립청원 방식의 운동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긍정적인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 손병희와 권동진·오세창·최린은 1월 말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진 후,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선언서의 배포와 시위의 전개를 통해 독립의 의지를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일본 정부와 귀족원·중의원, 조선총독부, 파리강화회의의 열국 위원들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고,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청원서를 보내기로 하였다.⁹⁾ 그리고 이들은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로 하였다.¹⁰⁾

천도교의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등은 먼저 교단 내부의 단속을 도모하였다. 손병희는 1919년 1월 초 “장차 우리 면전에 전개될 시국은 참으로 중대하다. 우리들이 이 천재일우의 호기를 무위무능(無爲無能)하게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내 이미 정한 바 있으니 제군은 십분 분발하여 대사를 그릇됨이 없이하라”고 당부하였다.¹¹⁾ 또 이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1919년 1월 5일부터 49일간 특별기도회를 행하게 함으로써¹²⁾ 독립운동에 대비하게끔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천도교계는 1919년 1월 하순부터 여러 세력과의 제휴를 추진하였다.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은 최린이었다. 최린은 중앙고등보통학교장 송진우(宋鎭禹), 동교 교사 현상윤(玄相允), 최남선(崔南善) 등과 의견을 나누고, 2·8독립운동의 추진을 위해 도오교오에서 파견된 송계백과도 협의하였다. 2월 상순 최린은 송진우·현상윤·최남선과 협의하여 대한제국의 관료였던 윤치호(尹致昊), 김윤식(金允植), 한규설(韓圭髙)를 대표로 하기로 하고, 최남선이 윤치호와 김윤식을, 최린이 한규설

9) 조규태, 「천도교와 3·1운동-천도교의 역할과 지방 독립만세운동의 특성-」,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도서출판선인, 2006), 17-20쪽.

10) 崔麟, 「自敘傳」, 『韓國思想』 4호, 1962년, 164쪽.; 『如菴文集』 上, 182쪽.

11) 崔麟, 「自敘傳」, 如菴先生文集編纂委員會, 『如菴文集』 上, 1971년, 182쪽.

12) 「경성지방법원의 오세창신문조서(제1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53·54쪽.

을 맡아 교섭하기로 하였다. 최린은 2월 초순 한규설을 방문하였으나 참여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최남선이 김윤식·윤치호에게 교섭해보았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였다. 송진우도 박영효를 방문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¹³⁾

진퇴양난의 국면에서 최남선이 기독교계의 원로인 이승훈(李昇薰)을 서울로 부르자고 제의하자 최린은 이에 찬성하였다. 최린과 최남선은 2월 7일 경 현상윤으로 하여금 수하동 정로식(鄭魯澁)의 집에 거주하는 김도태(金道泰)를 정주에 보내어 이승훈을 상경하도록 시켰다. 마침 사경회 때문에 평북 선천에 가있던 이승훈은 오산 학교 교사인 박현환(朴賢煥)으로부터 김도태의 연락을 전해 듣고 2월 11일 상경하여 김성수의 별저에서 송진우·현상윤과 만나 천도교측의 제의를 듣고, 2월 12일 정주로 돌아가 평안도의 기독교계 인사들의 의사를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승훈은 2월 17일 경 서울에 와서 20일과 21일 권동진과 최린을 찾아 왔다. 그러자 천도교측에서는 기독교와 천도교가 협력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그 방식은 독립청원이 아닌 독립선언의 방식을 취하기로 건의하였다. 2월 22일 기독교의 이승훈과 함태영이 최린을 방문하자, 최린은 또 다시 독립청원이 아니라 독립선언 방식의 운동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기독교계의 의견이 수렴되자, 천도교의 권동진, 오세창, 최린은 2월 24일 밤 기독교의 교섭대표인 이승훈, 함태영과 만나 천도교측과 기독교측이 연합하여 독립선언 방식의 독립운동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최린은 불교계의 참여도 이끌어내었다. 이미 최린은 1월 27·8일 경 일본 유학 시 알게 된 한용운을 방문하여 천도교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전개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었다. 그런데 최린은 기독교계와 한참 연합적 독립운동의 전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던 2월 20일 경 한용운을 만나 독립선언서의 발표, 독립청원서, 독립건의서의 송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독립운동의 계획을 설명하여 그로부터 찬성

1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권, 17쪽. 「경성지방법원의 제1회 최린 신문조사」,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134-137쪽.

을 받아 불교계의 동참을 이루어 내었다.

천도교측은 기독교 및 불교 측과 협의하여 민족대표를 33명으로 하고, 기독교에서 16명, 천도교에서 15명, 불교에서 2명의 민족대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천도교에서는 손병희·권동진·오세창·최린 외에 권병덕·김완규·나용환·나인협·박준승·양한묵·이종일·임례환·홍기조·홍병기의 15명의 대표를 선정하였다.

위의 표에 나타나는 천도교 민족대표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명개화파 출신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3·1운동을 처음부터 주도한 권동진·오세창·최린, 그리고 양한묵·이종일은 모두 문명개화파 인물들로 손병희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이다. 둘째 평안도 출신의 도사(道師)들이 다수이다. 평안도지방은 1894년 이후 손병희의 포교활동에 의하여 교세가 신장되었고, 1904년 진보회 운동의 주축이었으며, 천도교의 교세가 가장 강한 곳이었다. 셋째 東學 시기에 입교하여 손병희 휘하에서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고 천도교의 장로로서 활동한 인물이 주목된다. 이종훈, 홍병기가 바로 그런 예이다. 요컨대, 3·1운동 시 천도교의 민족대표로 선정되었던 인물들은 손병희가 일본에 망명하여 맺은 인연으로 입교하거나, 동학농민운동 이후 손병희가 포교하였던 평안도 지방의 두목 등 손병희 직계의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천도교에서는 건의서, 청원서의 작성과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책임졌다. 최린은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과 협의하여 마련한 독립선언서의 취지를 최남선에게 전달하여 독립선언서의 작성에 참고하도록 하였다.¹⁴⁾ 2월 10일 경 최남선이 독립선언서와 미국대통령 및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는 열국 대표에게 보내는 건의서의 초안을 가져오자, 최린은 이것을 손병희·권동진·오세창에게 보내어 검토하게 하고, 2월 중순 함태영에게 전달하여 기독교측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 일본정부와 조

14) 「경성지방법원의 최린신문조서(제1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22쪽.

선총독에게 보내는 청원서는 2월 20일 최남선이 일본정부와 조선총독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가져오자, 최린은 그것을 다시 손병희·권동진·오세창에게 보이고, 함태영에게 주어 기독교측의 검토를 받게 하였다.¹⁵⁾

천도교·기독교계 민족대표의 동의를 얻은 최린은 2월 26일 이것을 최남선에게 건네어 신문관에서 조판하게 하였다. 신문관에서 작업한 독립선언서의 조판은 2월 27일 보성사의 이종일에게 전달되었다.¹⁶⁾ 이종일은 보성사 직원 신영구와 김홍규에게 인쇄를 명령하여 27일 밤에 독립선언서 21,000여 장이 인쇄되었다.¹⁷⁾

이종일은 이병헌·신숙·인종익으로 하여금 인쇄된 독립선언서 21,000여 장을 안국동 사거리 주변의 오지영의 집에 옮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집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독립선언서는 경운동의 이종일 집으로 옮겨졌다.¹⁸⁾ 이종일은 28일 아침 사람을 보내어 독립선언서 3장을 오세창에게 건네주고, 인쇄완료통지를 통지하였다.¹⁹⁾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이종일은 독립선언서를 기독교·불교계에 배분하고, 중앙과 지방의 천도교회와 천도교인에게 배포하였다. 이종일은 2월 28일 기독교의 함태영에게 독립선언서 약 1,200~1,300장, 이갑성에게 1,500장, 불교계의 한용운에게 3,000장을 주었다.²⁰⁾ 그리고 이종일은 천도교의 인종익에게 2,000장을 주어 충청도·전라도에, 안상덕에게 2,000장을 주어 강원도·함경도에, 김상열(金商說, 金洪烈)에게 3,000장을 주어 평안도에, 이경섭에게 1,000장을 주어 황해도에, 이관에게 50여 장을 주어 서울시내에 배포하도록 하였다.²¹⁾

15) 「경성지방법원의 최린신문조서(제1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22쪽.

16) 趙容萬, 「獨立宣言書의 成立經緯」, 『三·一運動 50周年紀念論集』, 221쪽.

17) 「최린신문조서」,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권, 탐구당, 1990년, 24쪽.

18) 「獨立宣言 半世紀의 回顧」, 『新人間』 262호, 1969. 3, 50쪽.

19) 「이종일선생 취조서」, 이병헌 편, 앞의 책, 396쪽.

20) 「이종일선생 취조서」, 이병헌 편, 앞의 책, 397쪽.

2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972, 22-23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이종익은 당일인 2월 28일 1,700매를 갖고 전주군 천도교구의 금융원 김진옥(金振玉)에게 전달하여 전주 교구의 관내 및 인근 지역에 배포하게 하고, 나머지 300매를 가지고 청주에 가서 전달하려다가 3월 1일 체포되었다. 안상덕은 2월 28일 강원도 평강역에 이르러 동소 교구장에게 700여 장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3월 1일 함남 영흥읍내에 이르러 동소 교구장에게 나머지 1,300매를 교부하여 일반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종일로부터 3,000장의 독립선언서를 받은 김상열은 2월 28일 평양 교구장에게 평양역으로 나오라는 전보를 발송하고, 우기주의 명령으로 평양역에 나온 김수옥(金洙玉)에게 이것을 전달하였다. 이경섭(李景燮, 李弼燮)은 2월 28일 오후 8시에 서울을 출발하여 3월 1일 오전 10시 서흥의 박동주 집에 도착하여 그에게 독립선언서 750장 정도를 전달하고, 동일 오후 수안 읍내 홍석정의 집에 도착하여 그 집에 모인 교구장 안봉하와 홍석정과 홍석걸 등에게 250매를 전달하여 곡산에 130매를 전달하고, 나머지를 수안 등지에 배포하게 하였다.²²⁾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개최된 독립선언식에 천도교의 민족대표 15인은 모두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2) 독립신문의 발간과 임시정부 수립 활동

천도교에서는 3·1운동의 실상을 알리고 그것의 확산을 위해 『조선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1919년 3월 1일 이종일과 이종린은 박인호(朴寅浩)와 상의하고 윤익선(尹益善)을 사장 겸 발행인으로 하는 『조선독립신문』 1호 약 5천 부 정도를 인쇄·배포하였다. 『조선독립신문』 1호에서는 “3월 1일 오후 2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종로경찰서에 구인되었고, 독립운동을 힘차게 계속하

독립운동사』 제2권, 1971, 94쪽.

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5권, 1972, 22-23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2권, 1971, 94쪽.

라”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다. 『조선독립신문』의 창간 당일 이종일과 윤익선이 일경에 체포되자, 이종린은 3월 1일 관훈동 서적조합 사무소에서 서기로 일하던 천도교인 장종건을 만나 『조선독립신문』의 인쇄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이종린은 3월 2일부터 동월 7일까지의 사이에 『조선독립신문』 2호, 3호, 4호의 원고를 작성하여 장종건에게 전하였다. 장종건은 동 원고를 받아 서적조합 사무실에서 임승옥·김영작 등과 『조선독립신문』을 매번 약 600매씩을 프린트본으로 발간하여 이종린에게 전달하였다. 이 신문의 2호에는 “임시정부를 설치하며 임시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었고, 3호에는 “조선 13도 대표를 선정하고 3월 6일 오전 11시 종로에서 조선독립대회가 열린다.”는 내용과 3월 5일의 3·1운동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²³⁾

이종린이 3월 10일 경 일경에게 체포된 이후에는 장종건이 최치환(崔致煥), 최기성(崔基星) 등과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광화문동 유병륜의 집과 공덕동 남경훈의 집에서 『조선독립신문』 제5호에서 제8호까지 적게는 600~900매, 제9호는 2,000매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장종건과 최익한마저도 3월 25일 일경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천도교의 『조선독립신문』 발간 활동은 이후 다른 각계의 인물들이 신문을 발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²⁴⁾

3) 지방에서의 3·1운동

앞서 살폈듯이 천도교에서는 이미 거사 전에 인종익, 안상덕, 김상열, 이경섭 등을 통하여 독립선언서를 전국 각지에 배포하였다. 독립만세운동의 소식은 중앙총부-대교구-교구-전교실의 행정망과 연원제(淵源制)를 통하여 전국 각지로 전파되었

23)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19권, 탐구당, 1994, 96, 97, 188, 189쪽.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도서출판선인, 2006), 28-30쪽.

24) 윤병석, 「3·1운동중의 ‘독립신문’류」, 『중보 3·1운동사』(국학자료원, 2004), 189-211쪽.

다.25) 각 교구에서는 교구에 비치된 인쇄기로 독립선언서를 다시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천도교총부는 이미 3·1운동 이전에 30여개소의 대교구에 등사기 한 대씩을 비치하고 이사원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봉황각에서 특별 연성을 시킨 바 있었는데 이것이 독립선언서의 인쇄·배포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26)

1919년 3월 1일 평남 평양, 평북 의주와 선천, 황해도 황주에서 천도교의 시위가 일어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천도교인들이 주도하거나 대거 참여하는 독립만세시위가 발생하였다. 천도교인들이 주도하거나 대거 참여한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났던 곳을 도별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27)

<표 2> 천도교인의 독립만세운동

도	지 역(군)
평남	평양, 덕천, 양덕, 성천, 평원, 강서, 중화, 진남포, 맹산, 용강, 강동, 숙천, 순천, 안주, 순천, 영원
평북	의주, 선천, 용천, 철산, 구성, 정주, 운산, 창성, 강계, 자성, 초산, 벽동, 삭주, 위원, 태천, 영변
함남	함흥, 원산, 정평, 단천, 북청, 홍원, 영흥, 이원, 풍산, 갑산, 삼수
함북	성진, 길주, 경성, 부령
황해	수안, 곡산, 사리원, 金川(도산), 재령, 해주, 안악, 은율, 검이포, 송화, 연백, 신천, 평산, 장연, 서흥, 황주, 신계, 웅진
경기	인천, 수원, 광주, 양주, 가평, 여주, 이천, 용인, 평택, 시흥, 부천, 강화
강원	춘천, 홍천, 횡성, 원주, 정선, 삼척, 화천, 금성(철원), 통천, 철원, 평강, 김화, 양구, 회양
경남	부산, 마산, 진주, 울산, 고성, 함양
경북	김천, 경주
충남	대전, 논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서산, 아산, 공주

25)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72쪽.

26) 『獨立宣言 半世紀의 回顧』, 『신인간』 262호, 1969년. 3. 48쪽.

27) 이 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이병헌, 『三·一運動秘史』(시사시보사, 1959), 867~996쪽. 국사편찬위원회, 김정인, 『일제강점기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연구』, 72쪽. 박창건, 「3·1운동과 천도교 지방교구의 활동」, 『신인간』 458호, 1988. 3. 「조선소요사건일람표」(1919년 4월 말일),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 3·1운동편 1권, 1977, 361~441쪽.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도서출판선인, 2006), 32~37쪽.

충북	청주, 영동,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제천
전남	장흥, 완도, 진도
전북	전주, 임실, 남원, 순창, 정읍, 익산
만주	집안, 장백, 화룡, 훈춘

위의 표에 의하면 천도교인들의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은 평남, 평북, 함남과 황해도 등 서북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동학농민운동 이후 포교가 급격히 확대되어 천도교세가 강한 지역이었으므로, 독립만세운동도 왕성하고도 강렬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1919년 6월 30일까지 기소된 천도교인 117명 중 평양법원에서 기소된 사람이 64명으로 가장 많고 함흥법원에서 기소된 사람이 20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던 것²⁸⁾은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었다.

3. 3·1운동 후 천도교인의 국내민족운동

1) 문화운동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천도교에서는 민족대표 15인이 모두 구속되었다. 1919년 5월 무렵 전국적으로 1,363명의 교인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1919년 5, 6월 조선총독부는 천도교측에서 성미(誠米)를 명목으로 독립운동자금을 거두었다고 하여 중앙총부와 지방의 중요 교역자들을 대거 검거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는 천도교에서 경성제일은행에 보관한 20만엔 등 120여만 엔을 압수하였으며 동·부동산의 사용을 통제하였다.²⁹⁾

28) 조선총독부, 「소요사건검사처분인원표」,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운동편 제2권, 245쪽. 京城法院에 기소된 천도교인이 2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이러한 일제의 압력에 굴복하여, 천도교단은 1919년 9월 2일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를 설립하고 인내천주의(人乃天主義)의 신앙인 천도교를 확립하여 지상천국의 이상사회를 세울 것을 표명하였다. 이는 정치적 독립운동에서 벗어나 종교적 교화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다. 편술부·음악부·체육부로 구성된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는 천도교리의 연구·선전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19년 12월 당시 지부가 7개, 회원이 6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그 위상은 보잘 것이 없었다.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는 1920년 1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에서 청년 220여명을 선발하여 임시교리강습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아울러 문화주의와 문화운동론을 교육하였다. 마침 교회의 기관지인『천도교회월보』에서는 세계적인 개조의 물결에 부응하여「개조와 종교」라는 글을 실어 과학과 무력이 아닌 종교와 평화에 의해 개혁된 사회를 이룰 것을 주장하였다.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는 1920년 4월 문화운동을 선도하는 기관인 천도교청년회로 확대·개편되었다.³⁰⁾

천도교청년회는 1921년에는 평안도·함경도·황해도 등의 지역에 76개 지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최전성기에는 서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및 해외에 200여개 지회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회원수는 8,000여 명에 이르렀다. 본부의 조직은 포덕부·편집부·지육부·음악부·체육부·실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천도교청년회의 본부 회장은 정도준(鄭道俊)과 조기간(趙基堯)이었고, 그 외 간부는 김기전(김기전), 이돈화(李敦化), 박달성(朴達成), 차상찬(車相贊), 박래홍(朴來泓), 이종린(李鍾麟) 등이었다.³¹⁾

천도교청년회는 『개벽』의 발간, 순회강연, 교리강습소의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

29)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27-28쪽.

30)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34-38쪽. 김정인, 앞의 박사학위논문, 80쪽.

31)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168-197쪽. 김정인, 앞의 박사학위논문, 80-83쪽.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143-147쪽.

주의와 문화운동론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였다. 1920년 6월에 창간된 『개벽』은 창간호부터 1923년 말까지 개조의 필요성과 대세, 문화의 개념, 문화주의, 신인간론과 민족개조론, 중추계급론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천도교청년회 본부는 1920년 6월부터 8월까지 개벽의 필요성, 개조사상의 이상과 천도교와의 관련성, 자아의 인식과 해방, 교육의 중요성 등의 주제로써 강연하였다. 또한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는 1921년 7, 8월 순회강연을 통하여 「현대사조와 인내천주의」, 「신문화 건설과 우리의 사명」, 「교육과 노력」, 「신사회와 부인」 등의 글을 통하여 문화주의적 개조에 있어서의 천도교의 사명, 인간의 개조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 신사회의 건설을 위한 부인 개조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³²⁾

『개벽』, 『천도교회월보』, 이돈화의 저술인 『인내천요의』·『신인철학』등에 나타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에서는 기존 문명을 비판하며 새로운 문화의 건설을 통하여 신문명을 수립하려고 하였고, 문화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는 문명·문화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에서는 인류를 구성하는 민족·국가 간의 조화와 협동으로써 인류사회가 진화한다는 유기체론적 사회진화관, 그리고 정신주의와 엘리트주의적 사회변혁관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천도교의 문화운동론에서는 자아·자율을 위주로 하면서도 조화·협동도 중시하는 신인간의 형성과 이러한 방향으로의 민족 개조,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과 농촌개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사상과 협동정신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치적 자율과 경제적 협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자치운동론과 공생조합론·공동경작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³³⁾

천도교청년회는 1923년 9월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제도로써 지상천국의 새세상을 건설하려고 일어난 일대주의적 단체”임을 표방하는 천도교청년당으로 발전되었

32)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106-113쪽. 김정인, 앞의 박사학위논문, 80-83쪽.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143-147쪽.

33)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52-102쪽.

다. 천도교청년회가 문화주의와 문화운동론의 선전기관적 성격을 띠었다면, 천도교 청년당은 문화운동의 추진기관이었다. 천도교청년당은 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민부·노동부·학생부·상민부·청년부·유소년부·여성부의 부문을 두고, 유소년부 산하에 소년회, 여성부 산하에 내수단, 농민부 산하에 농민회와 조선농민사, 청년부 산하에 사월회, 학생부 산하에 학생회, 상민부 산하에 무공사, 노동부 산하에 노동회 등의 부문운동기관을 설치하였다.³⁴⁾

1925년 10월 천도교청년당원의 주도로 설립된 조선농민사는 농민야학의 실시, 잡지 『조선농민』의 발간, 농민독본의 보급 등을 통한 농민계몽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알선부·공생조합의 운영과 공동경작의 실시 등으로써 농민의 당면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조선농민사는 1925, 26년 이동휘·박진순 등 상해파 고려공산당계의 인물의 도움을 받아 조선농민사를 크레스틴테른에 가입시키려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³⁵⁾

1921년 5월 조직되어 김기전·방정환의 주도로 운영된 천도교소년회는 1923년 3월 잡지 『어린이』의 발간을 통하여 어른들의 어린이 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소년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천도교소년회는 1923년 4월 각계의 소년단체와 연합하여 ‘소년운동협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 선언’을 발표하는 등 소년해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³⁶⁾

천도교청년당은 1924년 4월 5일 천도교의 여성부문운동단체로 천도교내수단을 조직하였다. 천도교내수단은 “천도교의 중지에 맞는 새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한낱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함”이라는 천도교의 포교를 위한 목적과 아울러 “단결을 굳건히 하여 일반 여자의 지위를 향상케 함”이라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 천도교내수단은

34)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118-124쪽.

35) 조규태, 「天道教 新派의 自治運動과 朝鮮農民社의 크레스틴테른 加入 活動」, 『한국민족운동사 연구』48, 2006. 김정인, 앞의 박사학위논문, 164-175쪽.

36) 김정희, 『한국소년운동사』(민족문화사, 1992), 268-269쪽.

강습과 강연의 실시, 시일학교와 내수단 자학의 운영, 『부인필독』의 발간·보급을 통해 자율적·자립적 여성을 형성하기 위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천도교 중앙총리원과 천도교청년당 내에서 여권의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³⁷⁾

2) 6·10만세운동

3·1운동 후 서북지역과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천도교 중앙총부(중앙총리원)가 운영됨에 따라서 박인호(朴寅浩)와 그를 따르는 대체로 삼남 지방의 구세력의 천도교인들은 점차 지위와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박인호와 권동진·오세창·이종린, 박래홍·박래원 등은 1925년 천도교의 최린 등이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자신들을 배제하자 통일기성회를 조직하고 오영창계의 교인들과 힘을 합하여 1925년 11월 천도교 중앙위원회를 조직하고 천도교에서 분립하였다. 1926년 1월 중앙위원회를 중앙총리원으로 변경한 천도교의 구파는 우세한 처지에 있던 천도교 신파와 귀속재산을 분할한 후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³⁸⁾

천도교 구파의 이종린은 한국의 자치는 무저항운동이 아닌 전국적인 시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천도교 구파는 자치운동자와 결별하고, 조선일보계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협력관계를 다지는 한편 화요회계가 이끌던 조선공산당과 제휴를 추진하였다. 마침 이종린은 천도교인으로 화요회 출신의 조선공산당 당수인 강달영(姜達永)과 이미 1924년 경 민족협동문제를 논의한 바 있었다. 그리고 박래원(朴來源)은 구파의 대표인 박인호의 재종질(再從姪)로서 화요회계 조선공산당원이었다. 게다가 천도교 신파는 화요회와 대립한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인물과

37)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198-227쪽.

38) 조규태, 「천도교 구파와 신간회」, 『한국근현대사연구』7호, 1997, 195-198쪽.

제휴를 추진하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되어 천도교 구파는 화요회계 인물들과 제휴를 맺으려던 것으로 보인다.³⁹⁾

그런데 강달영이 이끄는 조선공산당도 천도교 구파와의 제휴를 희망하였다. 1926년 2월 26일 조선공산당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천도교를 ‘국민당’의 기초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강달영은 1926년 3월 4, 5일경 이종린을 방문하여 민족대동단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이종린은 종교계, 교육계, 사회운동단체의 대표적 인물들이 민우회(民友會)의 간판 밑에 모여 민족적 대동단결로써 조선의 독립을 성취하고자 답하였다. 천도교 구파의 권동진과 오상준(吳尙俊)은 1926년 3월 10일 밤 9시 권동진의 집에서, 조선일보사의 신석우(申錫雨)·안재홍(安在鴻), 기독교의 유억겸(兪億兼)과 박동완(朴東完), 조선공산당의 강달영과 회합을 가졌다. 이곳에서 이종린은 최린 등의 자치운동파를 비판하고 민우회를 구심점으로 단합하여 활동하자고 제의하였다.⁴⁰⁾

민족협동전선운동을 추진하던 1926년 4월 3일 천도교 구파는 이를 이끌어갈 전위단체로 천도교청년동맹(天道敎靑年同盟)을 조직하였다. 창립 당시 천도교청년동맹의 대표위원은 박래홍(朴來泓), 상무위원은 이기정(李起貞)·이재곤(李在坤, 李晷), 집행위원은 박한규(朴漢珪)·공순용(公淳鏞)·강세희(姜世熙)·이기열(李基說)·김덕연(金德淵)·조정호(曹定昊)·김재계(金在桂)·최병현(崔炳鉉)·오일철(吳一澈)·손재기(孫在基)·신태순(申泰舜), 고문은 이종린(李鍾麟)·김승주·오상준(吳尙俊)이었다.⁴¹⁾

그런데 조선공산당에서는 1926년 5월 메이데이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민족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6·10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39) 위의 글, 199-204쪽.

40) 조규태, 「천도교 구파와 신간회」, 『한국근현대사연구』7호, 1997, 199-200쪽.

41) 위의 글, 200쪽.

천도교 구파와 화요회계 제2차 조선공산당의 당원인 박래원은 1926년 5월 10일 경 화요회계의 조선공산당원인 권오설(權五高)로부터 천도교조직의 참여와 지방연락, 그리고 격고문의 인쇄를 요청받았다. 박래원은 천도교 구파의 교주 박인호, 장로 권동진(權東鎭), 종리원장 이종린(李鍾麟)에게 거사계획을 말하고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어 그는 천도교청년동맹의 대표인 박래홍과 집행위원인 손재기에게 거사내용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천도교인의 참여를 약속받았다.⁴²⁾

박래원은 천도교청년동맹원이면서 개벽사의 제본부원인 손재기, 천도교인으로 명심당이란 인쇄소 겸 인쇄포를 경영하던 백명천, 천도교인으로 경성인쇄직공조합의 집행위원인 양재식을 포섭하였다. 그리고 서울인쇄직공청년동맹의 집행위원인 민창식과 해영사의 직원으로 신흥청년동맹의 맹원인 이용재를 끌어들이었다. 그는 권오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소형인쇄기 2대와 용지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박래원은 1926년 5월 15일 경 권오설로부터 격고문과 전단의 원고를 받아 5월 31일까지 백명천과 민창식의 집에서 약 5만매의 격문을 인쇄한 후 경운동 88번지 천도교 본부내의 손재기의 집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그는 백명천으로 하여금 ‘대한임시정부인’ ‘대한독립당’ 등 2개의 인장을 만들어 1만장의 격고문에 ‘대한독립당’이란 글자를 날인하였다.⁴³⁾

박래원은 호남선·경부선·경원선·경의선의 4개 방면으로 나누어 격문을 배포하려고 계획하였다. 박래원은 천도교구파와 『개벽』, 『신여성』 등의 배포망과 천도교청년동맹 조직을 통해 전국의 언론사 및 천도교 교구, 소비자조합, 청년단체 등에 격문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천도교 구파의 청년전위단체인 천도교청년동맹은 격문의 배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⁴⁴⁾

42) 장석홍, 「천도교 구파의 6·10만세운동」, 『북악사론』4, 1997, 295쪽.

43) 위의 글, 쪽.

44) 위의 글, 쪽.

그런데 1926년 5월 30일 경 개벽사에 근무하는 이상우의 부인 고우화가 개벽사의 한구석에 쌓아놓은 곤포에서 격고문 2매를 반출하여 남편에게 주었고, 이상우는 이것을 양말제조업자인 안정식에게 전달하였고, 안정식은 이것을 이동규에게 주었는데, 6월 5일 이동규가 그만 종로서의 경찰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사건의 단서를 파악한 종로경찰서 고등계의 경찰들은 6월 6일 오전 개벽사를 급습하여 수색하였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오후 4시경 다시 경찰을 파견하여 천도교당 앞에 있는 손재기의 집에서 격고문 등 인쇄물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박래원과 손재기를 체포하였으며, 그 외에 이상우의 처 고우화, 손재기의 처 김재화 및 천도교 간부 수십 명을 체포하였다. 박래원은 체포된 당일에는 원고작성자는 상해의 김찬이며 자금의 제공자는 평북의 김모라고 꾸며대었으나 무수한 고문을 받자 결국 6월 7일 원고작성자가 권오설이라고 실토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조선공산당원 등 주도자가 거사 전에 거의 체포되고 말았다. 따라서 천도교 구파는 조직적으로 6·10만 세시위를 벌이지는 못하였다.⁴⁵⁾

3) 신간회 활동

6·10만세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고, 1926년 말 동아일보와 천도교 신파가 민족운동주도론을 주장하고, 조선공산당의 표면단체인 정우회가 민족협동전선론을 제기하며 활발히 움직이자, 박인호의 지시에 따라 권동진과 박래홍 등은 기독교계, 불교계, 사회주의계 인물들과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7년 1월 권동진, 박래홍, 이종린, 이병헌, 박완 등은 신간회를 발기하고, 1927년 2월 15일 신간회를 창립하는 데 간여하였다. 그리고 권동진은 신간회의 부회장, 박래홍과 이종린은 각각 총무부와 조직부 간사에 선임되었다. 신간회의 창립 후 천도교 구파의 권

45) 588-592쪽. 표영삼, 「천도교청년동맹과 6·10만세운동」,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천도교청년회팔십년사』, 2000, 588-592쪽.

동진·박래홍 등은 홍명희·박동완·최익환·안재홍·이관용·이옥·신석우 등과 ‘신간그룹’을 결성하고 신간회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전횡에 대항하고, 신간회 밖의 자치운동자들의 활동에 대처하고자 하였다.⁴⁶⁾

천도교 구파의 신간회 활동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한 것은 천도교청년동맹원들이었다. 천도교청년동맹원인 오상준(吳尙俊)·이황(李晃)과 구파 간부인 김영륜(金永倫)은 1927년 5월 신간회 경성지회를 설립하고 이를 이끌었다.⁴⁷⁾ 이외에도 천도교 구파의 천도교청년동맹원들과 교인들은 경기도의 경서·강화·광주·수원지회, 전라도의 강진·광영·영암·완도·장흥·정읍·남원지회, 충남의 당진·서산·예산·홍성·음성지회, 강원도의 양구지회, 경상도의 통영·영천·대구·병영지회, 평안도의 선천·신의주·구성·용천·철산지회 등에서도 간부 등으로 활동하였다.⁴⁸⁾

천도교 구파는 신간회 활동을 통하여 교세를 신장하고 교회조직을 정비하였다. 오영창계(육임파)가 구파로부터 분립하여 나간 1927년 9월 무렵 구파의 교인수는 6,000여 명이었으나, 1930년 12월경 교인수는 18,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천도교 청년동맹의 조직은 1927년 8개 지부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 1,300여 명을 지닌 36~40개 지부로 성장하였다.⁴⁹⁾

1929년 6월의 신간회 복대표대회 이후, 신간회 본부에서의 천도교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천도교 구파의 임원은 78명 중 중앙검사위원장 권동진과 중앙집행위원 이용길(李龍吉) 2명에 불과하였다. 그러자 천도교 구파는 신간회 경성지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⁵⁰⁾

46) 성주현, 「1920년대 천도교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와 활동」, 『동학학보』10호, 2005, 193-196쪽. 조규태, 「천도교 구파와 신간회」, 『한국근현대사연구』7호, 1997, 207쪽.

47) 조규태, 「천도교 구파와 신간회」, 『한국근현대사연구』7호, 1997, 206-210쪽.

48) 성주현, 「1920년대 천도교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와 활동」, 『동학학보』10호, 2005, 197-220쪽.

49) 조규태, 「천도교 구파와 신간회」, 『한국근현대사연구』7호, 1997, 209쪽.

민중대회사건 후인 1930년 초 김병로체제의 신간회 본부는 자치운동그룹과의 제휴와 천도교 신파의 가입을 모색하는 등 우경화 하였다. 그러자 천도교 구파는 경성 지회 등을 통하여 신간회 본부와 천도교 신파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1930년 천도교 구파는 신간회의 해소론을 반대하고 신간회를 유지시키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천도교 신파가 박인호를 교주로 인정하고, 교권을 대폭 양보하자, 천도교 구파는 1930년 말 천도교 신파와 합동하고 신간회를 해체한 후 개량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⁵¹⁾

4) 오심당사건과 멸왜기도사건

1934년 8, 9월 일경은 천도교 신파의 청년들이 ‘오심당(吾心黨)’이란 비밀결사를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하여 천도교청년당의 주요간부인 김기전, 조기간, 김병준, 김영환 등 230여명의 청년들을 구속하였다. 그리하여 일경은 김기전, 조기간, 이현재, 정응봉, 박사직, 김병준, 김영환, 백세명, 임문호 등 71명을 평양지방법원 검사국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류만 송치하였다.⁵²⁾

일경의 주장에 따르면 오심당의 조직과 활동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923년 경 서울에서 천도교청년회의 김기전·박사직·박래홍·조기간 등은 『동경대전(東經大畵)』 「논학문」의 “우리 도는 지금도 들어보지 못했고,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하였다(今不聞 古不聞)”이란 글귀에서 따서 ‘불불당(不不黨)’이란 청년비밀조직을 만들었다. 그런데 1929년 말 세계적인 대공황이 닥치자 불불당의 주도인물들은 향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왕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조직되어 있었던 ‘오심당

50) 위의 글, 208-209쪽.

51) 위의 글, 210-215쪽.

52) 『조선일보』1934.12.21, 석간 2면.

(吾心黨)'과 합쳐 오심당(吾心黨)이라 칭하고 조직을 정비하였다. 오심당은 1935·36년에 일본의 국제적 정치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천도교를 10년 이상 믿은 청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수련을 쌓게 하고, 자금을 모아 두었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남도 각도의 오심당에서는 각각 2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여 두었다.⁵³⁾

그런데 1934년 12월 20일 송치된 71명은 모두 사건의 내용이 박약하여 모두 석방되었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처리되었던 것이다. 교내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최린이 조선총독부와 교섭하여 무마시켜 풀려난 것이라고 한다.⁵⁴⁾ 그런데 구속자 중 71명이 서류만 송국되고, 송국자 모두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된 점을 통해서 보면, 불불당과 오심당의 독립운동적 성격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고 보인다. 오심당사건 후 천도교 신파의 최린이 시중회(時中會)에 참여하여 친일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일제 당국이 천도교 신파에 대해 압박하기 위한 데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1938년 2월 일경은 황해도 일대의 교인들을 대거 검거하고, 경기·충청·전라도의 교인 수백명을 검거하였다. 그리고 3월 4일에는 중앙간부인 김재계, 최준모, 한순희, 김경함도 검거하였다. 이후 일경은 대부분의 교인들을 석방하고 황해도 지역 연원 대표인 홍순의와 네 명의 중앙간부만 송국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당국은 4월 30일 사건의 전말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⁵⁾

(1) 불은문 관계

김재계·최준모·한순희 등은 일찍 천도교에 의한 조선의 주권회득을 몽상하고

53) 『조선일보』1934.12.21, 석간 2면.

54) 표영삼, 「천도교청년회와 민족운동」,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천도교청년회팔십년사』, 2000, 553쪽.

55) 『조선일보』1938. 5.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8, 705-708쪽.

조선을 일본제국의 통치하로부터 이탈 독립시키려는 의사로 소화 8년 9월 이강(以降) 누누히 모의한 결과 조선에서 일본의 정권을 구축하고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는 의미의 불은문을 작성한 후에 이를 독신자에게 교시하고 매일 식후 이를 읽게 함으로써 교도의 독립사상을 선동하고 그 정신적 결합을 도모하고자 결의하였다. 그리고 각각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홍순의는 김재계로부터 이를 받아 다시 이에 말을 붙여 황해도 내에 배부, 교도를 지도하고 비밀히 이를 실행하였다.

(2) 특별 회사금 모집

소화 12년 8월 10일경 최준모·김경함·한순희 등이 모의한 결과 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의 전과는 예측하기 어려워 구과 천도교 연래의 염원인 국권회복의 호기로 이를런지 모르므로 이 경우 활동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사금이라는 명목 아래 이를 모집하기로 하고 전 조선을 4구로 나누어 전기 간부들이 각기 모집 담당 구역을 정하여 홍순의 등과 함께 유력한 독신교도로부터 비밀히 324원을 모집하여 그중 120원은 간부들이 마음대로 생활비로 횡령 소비하였다.

(3) 특별기도 관계

종래 천도교구과는 특별기도라 칭하고 조선을 일본의 통치로부터 회복 독립시키는 의미의 기도를 행하여 왔는데 소화 12년 12월 20일 김재계·최준모·한순희 등은 소화13년도 특별기도 실시에 대하여 협의함에 있어서 종전대로 한다면 관헌의 취체탄압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동양평화의 기초가 하루바삐 확립되기를 기원한다는 문구를 표면에 위장하기 위하여 이를 부기하고 한편 교도에 대하여서는 이는 관헌을 기만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소지(素志)에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하고 홍순의는 최준모의 지시를 받아 이를 황해도 배하 교도에게 교시 격려하였다.

그런데 이들 다섯 사람은 구속된 지 70일 만에 모두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김재계·손필규(孫弼奎; 논산교인)는 석방 얼마 후 고문여독으로 사망하였다. 이처럼 송국된 사람들이 모두 기소유예로 석방된 것은 일경이 “중일전쟁 수행 상 사건을

확대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정치적인 배려 때문”이었다고 보기도 한다.⁵⁶⁾ 그렇지만 수백명이 체포되어 단지 5명만 송국되었고, 송국된 사람들이 1938년 4월 5일 대회에서 박인호가 퇴진하고 이종린이 대총사장으로 취임하여 시국에 따를 것을 천명한 후 기소유예로 풀려난 점을 통해서 미루어 보면, 일제 당국이 천도교 구파의 전시체제 협력을 바라고 실제보다 과장하여 사건화 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4. 3·1운동 후 천도교인의 국외민족운동

1)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과 관내 민족운동

3·1운동의 추진 후 천도교에서는 임시정부의 수립을 구상하고 있었다. 전단적 성격의 임시정부이지만 손병희, 오세창, 권동진, 최린 등은 대한민간정부의 대통령, 부통령, 재무부장관, 총무부장관으로 거론되었고, 손병희는 노령정부의 대통령에 거론되었다.⁵⁷⁾

천도교인 중 몇몇은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의 조직에도 간여하였다. 함남 함흥 출신으로 명치대 법과를 졸업한 홍도(洪濤, 洪振義)는 1918년 니콜리스크에서 문창범, 윤해 등과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으로 보아 문창범이 의장인 대한국민의회의 조직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홍도는 1919년 3월 말 경 상해로 이동하여 이영근(李瑛根)과 함께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수립에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도는 1919년 4월 23일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에 선임되고, 5월

5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8, 705-708쪽.

57)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계획과 천도교」, 『한국학보』20, 1985.

13일 임시의정원의 함경도 위원에 선임되어 상해 임정과 대한국민의회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영근은 1919년 7월 17일 사료편찬부 위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홍도와 안상덕, 신숙은 1919년 4월 국내에서 한성정부의 조직에 간여하였다. 그렇지만 이상의 인물들은 천도교를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였다. 3·1운동으로 천도교의 중앙과 지방의 주요 교역자들이 검거된 탓에 천도교인들의 임시정부 조직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하였던 것이다.⁵⁸⁾

1919년 9월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정부가 통합하여 상해에 대한민국의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중진급 천도교인들의 상해 망명이 증가하였다. 의주의 천도교인인 최동오(崔東旿)는 1919년 10월 출옥하자마자, 의주 대교구장인 최석련의 밀명을 받고 상해로 망명하였다. 1920년 5월에는 중앙총부 감사원(監査院) 서계원(書記員)으로 활동하였던 申肅(申泰鍊)이 상해로 망명하였고, 1920년 초 평북 용천 출신으로 남경 금릉대학 중학부 유학생인 張敬順, 김의종(金義宗), 김홍선(金弘善)도 상해로 망명하였다.

상해에 망명한 천도교인의 증가와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천도교인들의 수가 늘어났고, 위상도 높아졌다. 최동오는 1919년 11월 14일 내무부 참사(參事), 1920년 3월 4일 내무부 지방국장에 선임되고, 김홍선은 1920년 3월 16일 내무부 서기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홍도와 이영근은 1920년 3월 경 각기 함경도와 경상도를 대표하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국내의 천도교인 중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을 후원하는 인물도 있었다. 오세덕(吳世應)은 1919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철원군 조사원, 홍성연(洪聖淵)은 1920년 연통제의 함남 참의, 김병제(金秉濟)는 1920년 1월 평북 운산군 참의, 김병준(金秉濬)은 1920년 9월 독판부(督辦府) 함남 이원군 참사(參事)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58) 조규태, 「천도교단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민족운동사연구』23, 1999.

1920년 봄 상해에는 신숙(申肅), 최동오(崔東昨), 이영근(李瑛根, 李民昌), 홍도(洪濤, 洪鎮義), 강지산(姜智汕), 이우명(李宇明), 이몽양(李夢洋), 오세덕(吳世惠), 김홍선(金弘善), 장경순(張敬順) 등의 천도교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프랑스 조계 하비로(霞飛路) 보강리(寶康里) 20호에 주택을 얻어 동거하는 한편 이곳에 성화회실(聖化會室)을 마련하여 예배를 보고 포교활동도 전개하였다. 상해의 천도교인들은 종교활동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는 것과 아울러 통일당(統一黨)을 통하여 천도교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 하였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 내에서의 천도교인들의 위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1920년 초 천도교인들은 국장과 의정원 의원 2~3명, 서기 1명이 있는 정도였다.

마침 이승만과 정한경이 미국과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신숙은 동년 9월 상해를 떠나 북경에 가서 박용만(朴容萬), 신채호(申采浩)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비판적인 인물을 모아 군사통일촉성회(軍事統一促成會)를 발기한 후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에 반대하고 무장투쟁을 선호하는 단체의 인물들을 규합하려 하였다. 신숙, 최동오, 김의중, 이영근, 강구우 등은 천도교인들을 통일당에 결집하여, 1921년 4월 북경에서 군사통일회의가 개최되자 참여하여 미주 독립운동가 출신인 박용만,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계의 윤해, 서간도 서로군정서계의 이상룡 등과 이승만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북경과 상해지역의 천도교인들은 안창호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개혁을 위해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자 이에 동의하고 국민대표회의의 개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최동오는 국민대표회기성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신숙·최동오·강지산·이우명은 북경에 전교실을 세우는 명목으로 중앙총부에서 개최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였으나 기대만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23년 1~2월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강구우는 대표자격 심사위원, 신숙은 회안기초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본 회의에서 신숙은 천도교 대표, 이민창은 통일당 대표, 이제하(李濟河)·정경섭(鄭庚燮)은 천도교청년회 대표로 활동하였다. 신숙과 이민창 등은 창조론을 지지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의견의 불일치로 결렬된 후 1923년 6월 북경에서 창조파가 조선 공화국을 수립하고 국무위원회와 국민위원회를 조직하자, 신숙은 국민위원회와 국무위원회의 위원 겸 내무위원장으로 선정되었고 천도교인 강구우(姜九禹)는 대한국민회를 대표하여 국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창조론을 지지한 신숙 등의 천도교인들은 1924년 2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1회 국민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독립당안을 마련하였다. 북경으로 돌아온 신숙, 강구우, 김의중 등은 1924년 8월 북경에서 활동하던 서알보, 한진산, 원세훈, 송호성, 이세영 등의 민족운동기들과 북경한교동지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26년 10월 강구우와 김홍선은 북경에서 대독립당조직북경축성회를 설립하는 데 간여하였다.⁵⁹⁾

북경에서 활동하던 천도교의 리더 신숙은 1924년 10월 북경을 떠나 액목현(額穆縣) 교하(蛟河) 방면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신숙은 취원창 등지에서 농사지며 생활하다가 1930년 7월 한국독립당의 창당에 간여하였다.⁶⁰⁾

최동오는 1926년 경 만주의 화전현(樺甸縣)에 가서 화성의숙(樺城義塾) 화흥학교(樺興學校)의 숙장과 교장으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8년 동북삼성귀화한민대표(東北三省歸化韓民代表)로 귀화한인의 보호와 교육 등에 관하여 국민당 정부와 교섭을 벌였다. 그는 1929년에 설립된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의 중앙집행위원 겸 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31년 만주사변 후 조선혁명군과 국민당군의 대일항전을 지원하였다. 1932년 관내(關內)로 이동한 최동오는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그는 1933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무장(法務長)에 임명되었고, 1934년에는 의무위원을 겸하였으며, 1943년 무렵에는 임시의정원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그는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의 성립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김원봉의 독재에 불

59) 조규태, 「1920년대 중반 재북경 창조파의 민족유일당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7호, 2003, 246-251, 266-270쪽.

60)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신숙」, 2002.11.

만을 품고 나와 1937년 4월 이청천과 조선혁명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1943년 이후에는 한국독립당에 속하여 활동하였다.⁶¹⁾

한편 이영근은 1919년 11월 상해의 대한교육회에서 편집부원으로 활동하였고, 흥도는 1919년 말 이동휘와 교류하며 『효종(曉鐘)』의 주필로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1921년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간부로서 활동하였다.

2) 만주지역 무장독립운동단체 활동

만주지역의 천도교인들은 서간도와 북간도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무장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초 집안현 태평구의 천도교인들은 기독교인 등과 의용단청년회(義勇團靑年會)를 조직하고 단원과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장백(長白)지역의 천도교인 김병윤(金秉潤)은 1919년 5월 유일우(劉一優), 이창운, 박기윤(朴基潤) 등과 대한독립단에 가입하여 동년 음력 6월 대한독립단 장백지단을 조직하고 부단장이 되어 단원과 군자금 모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병윤은 천도교인 김낙윤(金洛允)과 창흥상회(昌興商會) 설립하고 목면, 소금, 어류, 미곡을 팔아 얻은 수익을 대한독립단의 독립운동자금으로 충당하였다.

대한독립단 장백지단은 1919년 11월 17도구 동평덕리(東坪德里)에서 군비단(軍備團)으로 발전하였다. 김병윤은 군비단 외교총장겸 장백지단장, 박기윤은 본단 재무부 부원 겸 장백현 제4지단장, 강건·조성극은 본단 재무부 부원, 엄학모(廉學模)는 서무부의 부원, 김낙윤(金洛允)은 박기윤 휘하 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있었다. 엄학모는 1920년 8월 29일 장백현의 중심지에서 경술국치기념식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61) 조규태, 『신인간』

임시정부의 공보(公報)의 내용을 알리면서 배일사상을 고취하였다. 1921년 2월 경 조훈(趙勳)은 군비단의 외교부장, 김동준(金東俊)은 군사부장, 염학모는 재무부원, 조성극은 경찰부원, 이계학은 경찰부원, 김락윤은 외교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편 북간도에서 활동하던 천도교인들은, 3·13시위 후 북간도에서 조선독립의 사회가 조직되어 조선독립기성회를 거쳐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로 발전하자, 대거 이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함북 종성 출신인 강구우(姜九禹)는 대한국민회 총부의 부회장 겸 연길현(延吉縣) 지인향(志仁鄉) 의란구(依蘭溝)의 제2중부지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최익룡(崔翊龍)은 대한국민회 사령부 사령관 안무(安武)의 부관으로 활동하였고, 1920년 대한국민회, 대한의민회, 대한신민단, 대한광복단이 연합하여 조직된 북로사령부(北路司令部)의 참모부(參謀部) 서기로 활동하였다. 1920년 8월 경 많은 천도교인들이 대한국민회의 총부와 지방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강구우가 총부의 부회장, 이성교와 최륜이 총부의 재무부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성학은 제1중부지방회 소속 12구지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지인향 의란구 대북구에 위치한 제2중부지방회에서는 강구우가 회장, 이성학이 의사부원, 오세환·김석현이 경호부원, 이윤백이 사교부원, 최륜이 재무부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제2중부지방회 소속 지회에서는 김병주가 석인구지회 지회장, 오민영이 광제촌지회 지회장, 이희완이 광제촌지회 재무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동부지방회에서는 최창기가 사교부원으로 활동하였다. 소속 지회에서는 강세중이 월신사 결만동 기풍동의 10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서부지방회에서는 최익룡과 김홍선이 비서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태언이 서부지방회 소속 14지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제1북부지방회에서는 이덕재가 5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3) 고려혁명당 활동

정광조가 주도하는 문화운동에 반대하고 동학의 이념을 고수하려던, 오지영, 흥병기, 최동희 등의 천도교인들은 동학세력의 결집을 희망하였다. 이들은 1921년 5

월 천도교 외에 시천교, 제우교, 청림교, 경천교, 제세교 등의 간부를 서울 광화문 김형식(金滢植)의 방에 불러 모아 동학구락부(東學俱樂部)의 조직을 발기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일본유학생 출신인 정광조 등이 장악하고 있던 중앙총부의 문화운동 정책을 비판하고 무교주제의 실시, 지방교구의 권한 강화, 연원제(淵源制)의 폐해 시정, 일반교인의 견해가 반영되는 의정원제(議正院制)의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오지영 등은 지방의 교구장과 젊은 교인들을 견인하여 교회의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였으나 총부를 장악하고 있던 정광조·최린과 이들을 지지하던 애국계몽운동계의 권동진·오세창, 그리고 서북지역의 원로인 이인숙·오영창·나용환·나인협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1922년 12월 천도교연합회를 조직하고 분립하였다. 이들은 동학의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동학의 평등사상을 본받아 비계급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였다.⁶²⁾

이 천도교연합회의 주도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의 장남인 최동희(崔東曦)였다. 그는 일본 와세다 정경학부에서 수학 중 사회주의사상에 공감하였다고 한다. 1914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최동희는 홍병기, 이상우 등과 상의하고 손병희에게 동학의 항일정신을 추구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시천교 등 동학계 종교와 통합하고, 내부의 부패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3·1운동 후인 1920년 8월 그는 대구지역을 돌아다니며 이근호(李根鎬) 등과 소비에트러시아정부와 결탁하여 만주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여 무비를 갖춘 후 일본과 항일전을 전개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도 하였다. 그는 1922년 7월 14일 서울에서 전국순회공연 중이던 블라디보스톡교구의 천도교인 김광희(金光熙), 김치보(金致甫), 김홍종(金洪鍾), 강도희(姜道熙) 등과 고려혁명위원회(高麗革命委員會)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의 고문은 이종훈, 위원장은 홍병기, 부위원장은 최동희, 비서 송현, 외교부장 최동희, 해외조직부장 이동락, 해외선전부장 김광희, 해내조직부장 이

62)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4, 1996, 204-218.

동구, 해내선전부장 김봉국, 재정부장 박봉운, 위원 김치보·강창선·지동섭·김홍종·강도희·김문벽·이동욱·강명혁·김명식·손두성 등이었다.⁶³⁾

고려혁명위원회 부위원장 겸 외교부장인 최동희는 1923년 연해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활동하던 고려혁명위원회의 해외선전부장인 김광희와 위원 김홍종·강도희 등과 협력하는 한편 이동휘·한명세 등의 도움을 받아 코민테른의 집행위원이었던 가다야만 센(片山潛)을 소개받았다. 그는 가다야마 센에게 서신을 보내어 천도교의 민족성과 계급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혁명운동, 즉 독립운동과 사회혁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천도교의 혁명적 역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1924년 4월 천도교 최고비상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동년 6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군인구락부(軍人俱樂部)를 조직하고, 만주와 국내에 사람을 파견하여 동지와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코민테른 및 소비에트러시아 정부에 이러한 조직과 그 활동을 과장해서 말하며 고려혁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최동희의 요청에 대하여 코민테른과 소비에트러시아 정부는 그의 주장을 들어주는 대신에 1925년 1월 일로평화조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그와 천도교인들을 국외로 추방하였다.⁶⁴⁾

만주로 이동한 최동희는 이곳의 민족운동가인 양기탁, 정이형, 이일심 등과 일본 제국주의의 현존 제도를 파괴하고 혁명을 통해 한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정의부원, 천도교도, 형평사원의 삼각동맹으로 혁명당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는 1925년 중반 천도교연합회의 간부인 김봉국과 천도교이면서 형평사의 간부인 이동구를 만주로 불러 혁명당의 결성계획을 설명하였다. 이 설명을 들은 김봉국은 귀국하여 천도교연합회의 간부인 송헌과 이동락에게 전파하였다. 그리고 이동구는 형평사의 간부인 오성환에게 전달하였다.⁶⁵⁾

63) 위의 글, 221-229쪽.

64) 위의 글, 231쪽. 「최동희가 片山潛에게 보낸 서신」(1923.12.20). 「최동희가 片山潛에게 보낸 서신」(1924. 6.25). 『천도교의 민족운동 연구』203-204쪽.

65) 박환, 「정이형(1897~1956)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우송조동결선생정년기념논총

1926년 2월 15, 16일 최동희는 길림성 내에서 양기탁, 주진수, 이일심, 고활신, 현정경 등과 고려혁명당의 조직을 협의하였다. 1926년 3월 천도교 대표인 김광희, 이동구, 김봉국, 이동락 등이 길림에 도착하자, 최동희는 이들과 함께 3월 25일과 29일 양기탁의 집 등에서 당명을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이라고 정하고, 기관을 조직하고 임원을 선정하였으며, 선언·강령·당략·당규·맹약 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4월 5일 고려혁명당을 창당하였다. 창립 당시 고려혁명당의 간부는 위원장 양기탁, 책임비서 이동구, 위원 정이형·현정경·오동진·고활신·이동락·김봉국·최소수·주진수·곽종육·현익철·이규풍 등이었다. 이 가운데 책임비서인 이동구, 위원인 이동락·김봉국·최동희(최소수)가 천도교인이었다. 이동구가 “조선이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고려혁명당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듯이, 천도교인들은 조선의 독립과 피착취계급의 해방이라는 두 가지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혁명당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였던 것이다.⁶⁶⁾

고려혁명당의 조직에 참여한 천도교인들은 당원의 모집에 힘을 기울였다. 최동희는 1926년 음력 3월 길림성 화전현에서 이동옥(李東郁)을 만나 고려혁명당의 취지를 설명한 후 입당시켰다. 그리고 그는 1926년 4월 서울에서 흥병기에게 고려혁명당의 취지를 알려주고 입당시켰다. 또 그는 1926년 11월 길림성 아성현(阿城縣)에 거주하는 유공삼을 하얼빈으로 불러내어 고려혁명당의 목적을 알려주고 입당시켰다.⁶⁷⁾

고려혁명당의 발전을 위하여 전북 익산 등지에 거주하던 오지영 등의 천도교인들은 1926년 3월 전북 김제·익산·순창·전주·옥구·고창과 충남 논산·부여에 거주하는 천도교인 222명을 이끌고 화전현(樺甸縣) 화수림자(樺樹林子)에 집단 이

II, 1997, 608-608쪽.

66) 박환, 「정이형(1897~1956) 연구」, 앞의 책, 609-613쪽.

67)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앞의 책, 234쪽.

주하였다. 또 1926년 9월에는 황해도 서흥의 김경신(金京信) 등의 천도교인들이 길림성 액목현(額穆縣)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김봉국은 1926년 경부터 성천 등지의 천도교인들에게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인내천주의 하에 건설된 공산국이 있으니 그곳으로 이주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27년 2월에는 평안남도 성천 등지의 27명의 천도교인들을 만주 길림지방으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천도교연합회원들의 집단적인 만주 이주는 고려혁명당의 세포조직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깊었다.⁶⁸⁾

한편 최동희는 1926년 중반 주하얼빈 소비에트러시아 총영사로부터 “천도교를 이끌고 국제공산당의 산하로 온다면 창조파에게 주기로 하였던 27만원을 최동희에게 주겠다”는 카라한의 제의를 전해듣고 이규풍(李圭豐)을 동반하고 북경에 가서 주러대사인 카라한을 2, 3회 면담하였다. 그 때 카라한은 최동희에게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의 선전부장인 지노비에프를 만나라고 하였다. 카라한의 제의를 받은 최동희는 상해로 가서 김규식(金奎植) 등과 상의한 후 지노비에프 및 보이딘스키와 회견하여 고려혁명당의 승인 및 원조를 얻고자 하였다. 또 최동희는 1926년 7월 1일 당대표의 자격으로 노산(蘆山)에서 국민당의 장개석(蔣介石)을 만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최동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⁶⁹⁾

불행하게도 1926년 12월 28일 고려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이동락(李東洛)이 장춘에서 일경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체포 당시 이동락은 당의 선언서·강령·당략·규약·맹약 등 다수의 문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드러나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었다. 1927년 1월 경 형평사의 집행위원인 서광훈·장지필·조규용·오성환이 체포되었고, 동년 1~2월 천도교연합회의 간부인 홍병기, 송현, 이동욱, 김봉국 등이 서울과 만주에서 체포되었다. 1927년 3월에는 하얼빈에서 정이형과 아울러 천도교인 이동구와 유공삼이 체포되었다. 1928년 4월 20일 신의주지방

68)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연합회의 변혁운동」, 앞의 책, 238-241쪽.

69) 朝保秘 제661호, 「노농공산당과 천도교와의 관계에 관한 건」(1926. 7. 21), 『언문신문역』. 박환, 「정이형(1897~1956) 연구」, 앞의 책, 614쪽.

법원에서 천도교인 이동구는 징역 7년, 김봉국·이동락은 징역 6년, 송헌은 징역 5년, 홍병기·이동옥은 징역 4년, 유공삼은 징역 2년의 형을 받았다. 최동희는 1927년 1월 26일 상해에서 지병인 폐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써 천도교연합회원을 중심으로 한 천도교인들의 고려혁명당 활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⁷⁰⁾

4) 재만한인조국광복회 활동

1930년대 중반 만주지역의 박인진포 교인들은 김일성이 이끄는 조국광복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36년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동북항일연군 제6사 아래에 김일성이 이끄는 조국광복회가 조직되자, 박인진포의 천도교인 일부가 이에 참여하였고, 이어 박인진포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조국광복회에 참여하여 조직의 확대, 보천보 습격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⁷¹⁾

1935년 7월 코민테른 7차 대회에서, 반제통일전선의 형성과 동북인민혁명군의 동북항일연군으로의 재편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1936년 2월 영안현의 남호두회의와 동년 3월의 미혼진회의에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을 동북항일연군 제2군으로 재편하고, 제2군 산하에 조선인유격대원을 중심으로 제3사(1936년 7월 제6사로 변경)를 조직하기로 협의하였다. 동북항일연군의 제3사 사장에 임명된 김일성은 1936년 4월 무송현 동강에 이르러 조국광복회의 설립에 착수하여 동년 5월 5일 반일통일전선조직체로 조국광복회를 설립하였다. 조국광복회는 전민족의 계급, 지위, 당파, 연령, 종교 등의 차별을 불문하고 백의동포가 일치단결하여 궤기하고 구적(仇敵)인 일본노 등과 싸워 조국을 광복할 것을 지향하였다.

70) 「이동구등 판결문」(신의주지방법원, 1928. 4.20). 박환, 「정이형(1897~1956) 연구」, 앞의 책, 615-617쪽.

71) 성주현, 「1930년대 천도교의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25, 2000. 이하천도교인의 조국광복회 참여 관련 내용은 이 글 참조.

이러한 규약에 발맞추어, 조국광복회는 종교계와의 반일통일전선의 형성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여러 종교 단체 중에서, 김일성 등 조국광복회의 주도인물은 천도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조국광복회의 영수인 김일성은 화전현(樺甸縣)에 위치한 화성의숙(樺城義塾)에 다니면서, 숙장인 최동오(崔東旿)와 숙감인 강제하(康濟河)등으로부터 천도교의 보국안민의 사상과 교리와 역사를 배우고, 천도교를 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김일성 등 조국광복회의 주도인물은 천도교가 외래종교인 기독교와 달리 자생종교이며, 농민이 구성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에서 드러난 바처럼 항일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천도교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1936년 11월 초 김일성은 통화성 장백현 오지의 산중에서 위증민(魏拯民), 권영달, 이동석, 장증열, 황남훈 등과 협의하여 천도교를 획득하여 항일인민전선의 일익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김일성은 김재범(김평)으로 하여금 장백·삼수·갑산지역 천도교의 책임자인 박인진(朴寅鎭)을 만나게 하였다.

1936년 11월 초순 김재범이 장백현종리원장인 이전화(李銓化)의 집으로 오자, 이전화는 사람을 시켜 박인진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다음날 박인진과 이전화는 김재범으로부터 조국광복회의 강령과 선언 등을 듣고, 조국광복회가 이와 같은 선언과 강령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천도교인도 통일전선에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박인진과 이전화는 1936년 11월 초 백두산 밀영으로 김일성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박인진과 이전화는 김일성과 함께 천도교와 조국광복회의 통일전선의 형성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박인진은 100만명의 청년당원을 포함한 300만명의 천도교인을 항일독립운동에 참여시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문제의 실현을 위해, 박인진은 1936년 12월 24일 천도교의 인일기념일을 기해서 이전화와 함께 서울에 올라와 천도교의 대표인 최린과 협의하였다. 그러나 최린은 “김일성주의는 우리 천도교의 주위에 반대가 됨으로 제휴할 수 없다”고 하며 천도교와 조국광복회의 협력을 거절하였다. 장백현으로 돌아온 박인진은 1937년 4

월 장백현 왕가골 이전화의 집에서 장백현·갑산군·풍산군·삼수군 종리원의 대표 11명과 조국광복회와의 통일전선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박인진은 자신의 연원인 지원포(智源布)와 장백현종리원의 교인의 조국광복회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장백현과 삼수군 및 갑산군 등지의 천도교인들은 조국광복회에 가입하고 그 조직을 확장하였다. 이전화는 1936년 12월 권영벽의 권유로 조국광복회에 가입한 후 1937년 1월 서응진, 최경화, 전남순 등과 조국광복회 장백현 왕가동지회를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왕가동지회에는 천도교청년당 장백부당원인 홍명의(洪明義)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전화는 1937년 4월 5일에는 왕가동지회 종리원촌 분회를 조직하고 자신의 세 아들과 며느리, 대부분의 관할 교인들을 이에 가입시켰다.

1937년 4월에는 조국광복회 헤산지회가 설립되었다. 이 헤산지회에는 헤산종리원장과 16명의 천도교청년당원이 참여하였다. 또 1937년 5월에는 갑산지회가 설립되었다. 갑산종리원장인 조병학과 회린면·산남면·진동면·동인면의 교인과 청년당원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1937년 6월에는 삼수군 광생리지회가 설립되었다. 박인진은 1936년 이례영(李禮泳)과 박분화를 삼수군 별동면 광생리에 파견하여 광생리지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광생리지회의 회장은 이례영이었으며, 조직부책임자는 천도교인 박병주(朴秉珠), 선전부책임자는 천도교인 박병열(朴秉烈)이었다.

한편 풍산군에도 천도교인들이 중심을 이루는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이 구성되어 있었다. 풍산군의 조직은 이 지역 천도교청년당의 대표인 이경운(李景云)의 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 이경운은 1936년 12월 천도교청년당원이었던 이창선의 권유로 조국광복회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그는 김재범의 권유로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하여 동북항일연군 제6사 제7단에 배치되었다. 그는 1937년 3월 천도교의 조직망을 이용하여 조국광복회 풍산지회를 조직하였으며, 풍산면, 천남면, 안산면, 능기면 등지에 풍산지회의 분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풍산군 지역의 수백 명의 천도교인이 조국광복회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조국광복회에 참여한 천도교인 중에는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하여, 직접 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창선, 이경운, 최용진(崔龍振), 풍산군종리원의 임원과 천도교청년당원인 김동학(金東學), 그 외 많은 천도교청년들이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1937년 보천보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장백현 삼수·갑산군 및 풍산군의 천도교인 중에는 생산유격대를 조직하고 조국광복회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1937년 풍산군에서는 조완서와 풍산군종리원장, 이창선, 풍산군의 천도교청년당원인 원충희(元忠喜), 염종수(廉宗洙) 등의 노력으로 생산유격대가 조직되었다. 또한 삼수군에서는 박병주, 박병열, 조병수(趙秉秀), 한창수(韓昌洙), 조완서(趙完書), 박병기(朴秉基) 등이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장백현에서는 홍명의, 박봉훈(朴鳳勳) 등이 생산유격대를 조직하였다.

5) 일본과 연해주 등에서의 민족운동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일본지역 거주 천도교 청년들은 1921년 4월 5일 도쿄에서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를 조직하였다. 회장은 방정환이었다.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921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실시하였다. 동경지회의 회원들은 순회강연 시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을 강연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문화운동에 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천도교청년회 동경지회는 1926년 10월 3일 천도교청년당 동경부로 발전하였다. 동경부는 1927년 11월부터 기관지로 『동학지광(東學之光)』을 발간하였다. 『동학지광』의 내용은 주로 문화운동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지만 때로는 민족문제의 개선과 비타협적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동경부에서는 1930년 11월 「조선민중에게」와 「조선학생에게 호소함」이란 인쇄물을 국내에 배포하여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예찬하고 고무하려다가 배포를 금지당하고, 책임자 두 명이 체포되어 벌금을 물기도 하였다. 동경에서는 1929년 2월 17일 천도교 구파의 천도교청년동맹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동경청년동맹은 특별한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동경에 설치된 천도교종리원은 1924년 11월 자

강회를 설치하여 육영사업과 아울러 학생들에게 직업을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도교와 교토, 오오사카 등지에는 동경사월회, 동경학생회, 내수단 동경부, 동경소년회 등의 조직이 있어 문화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⁷²⁾

연해주지역에서도 천도교인들은 교구와 청년회를 설립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 후 함남 성진에서 시위를 전개한 김광희·강도희·김홍중, 길주에서 시위를 전개한 천태종 등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였다. 이들은 김치보·한용헌 등이 지역의 민족운동가들을 입교시키고 정규선·강수엽 등과 힘을 합하여 1921년 7월 천도교 블라디보스톡 교구를 설립하였다. 당시 교구장은 김치보, 종의사(宗議師)는 강도희였다. 블라디보스톡 교구의 천도교인들은 일본군이 연해주를 장악하고 있던 1920년 4월부터 1922년 10월까지 포교활동과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블라디보스톡 교구의 천도교인들은 1922년 4월부터 7월까지 국내 순회공연을 벌여 한인들에게 자신들의 노래와 춤을 소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강연을 하였다. 한편 이 공연단에 속한 김광희, 김치보, 강도희, 김홍중은 국내 순강 중이던 1922년 7월 14일 서울에서 최동희 등과 함께 고려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연해주가 공산화된 1922년 말 이후 연해주에서 공산주의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1923년 최동희가 연해주에 오자 그에게 사회주의자를 소개시켜 주고, 그와 함께 코민테른과 소비에트러시아 정부의 도움을 받아 천도교인들을 무장시키고 독립혁명과 사회혁명을 이루려고 하였다. 그리고 김광희와 최동희 등은 1926년 초 길림에서 고려혁명당을 결성하는 데 참여하였다.⁷³⁾

<이 글은 다음 글의 일부 내용임. 조규태, 「천도교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종교계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의역사 38, 2008.>

72) 김인덕, 「일본지역 천도교 청년조직과 활동」, 천도교청년회중앙본부, 『천도교청년회팔십년사』, 2000, 478-507쪽.

73) 조규태, 「1920년대 연해주지역 천도교인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55, 2008.

20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대사업

동학농민혁명 대국민강좌 (Ⅲ)

동학농민혁명 후 동학-천도교 민족운동

강사 : 성 주 현

(경기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 부천대 교수)



지역별 동학혁명의 연구성과와 과제

성주현 / 경기대

1. 동학혁명과 동학

아시다시피 동학혁명은 1894년에 전개되었던 ‘대사건’이었다. 동학혁명에 대한 논의에서 늘 중심에 서있는 것은 동학과 동학조직이 얼마만큼 깊이 관여하였느냐는 점이다. 그래서 논의되는 것으로 첫째 ‘동학중심설’, 둘째 ‘동학결합설’, 셋째 ‘동학외피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첫째 동학중심설이다. 이 설은 동학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그 중심세력이 동학조직이라는 논점이다. 즉 동학혁명은 동학조직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주도인물을 비롯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인물 대부분이 동학에 입도한 동학교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연구자는 김창수, 이현희, 표영삼 등이다.

둘째, 동학결합설이다. 이는 동학혁명은 동학조직과 농민들이 결합하여 전개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동학혁명이 일어난 초기에는 동학조직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농민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연구자는 신용하가 대표적이다.¹⁾ 이와 관련하여 신용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신용하,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사회사』, 지식산업사, 2005. 동학결합설에 대해서는 「IV. 동학과

필자는 동학이 이제까지의 ‘민란’과 ‘결합’하면서 민란에 ① 조직과 ② 사상(특히 평등 사상)을 주어 민란을 농민혁명운동으로 규모와 내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였으며, 더 나아가 갑오농민혁명운동을 발발시켰다고 보고 있다.²⁾

셋째, 동학외피설이다. 이 설은 동학혁명에서 동학은 이념만 제공하고 실제적으로는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다는 주장이다. 즉 동학혁명에서 동학조직은 크게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학외피설'은 북한 학계에서 주로 주장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동학외피설을 제기하였는데,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오길보의 「갑오농민전쟁과 동학」(『력사과학』3, 1959)과 「1894-1895년(갑오)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하여」(『력사과학』3, 1964)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김용섭이 「전봉준 공초의 분석-동학란의 성격 일반-」(사학연구 제2호, 1958)에 처음으로 주장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널리 확산되었다. 동학외피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박종근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에 대하여」(『동학혁명의 연구』, 백산서당, 1982), 정창렬의 『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과 「동학과 농민전쟁」(『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김용섭의 「동학란연구론」(『역사교육』3, 역사교육연구회, 1985), 안병욱의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연구 현황」(『한국 근현대사 연구 입문』, 역사비평사, 1988) 등이 있다.

동학외피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전봉준이 동학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 성과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해 김창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갑오농민혁명의 결합'을 참조할 것.

2) 앞의 책, 86쪽.

동학에 대한 다양한 명칭과 학설이 존재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동학[농민]혁명과 갑오농민전쟁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동학사상과 동학운동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내적 연관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갑오농민전쟁론의 초점은 '종교적 외피론'과 동학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을 동학과 관계 없다는 점에 모아진다. 이 이론은 동학의 매개적 역할만 강조한다. 종교적 외피론은 엥겔스의 독일농민전쟁의 이론을 동학혁명에 적용한 것으로 강제언에 의해 처음 주장된 것이며, 전봉준이 동학교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북한학자 오길보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엥겔스는 독일농민전쟁을 당시 독일 봉건군주의 농민에 대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한 농민의 계급투쟁으로 보았고 이를 동학혁명에 적용하여 동학과는 관계없다는 종교적 외피설 또한 엥겔스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1894년의 동학혁명을 역사적 조건이 다른 독일 농민전쟁의 이론을 적용한 개념이기에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학사상 및 동학교문의 역할을 전혀 배제한 용어개념이기 때문이다.

전봉준이 동학교도가 아니라는 주장 또한 문제가 많다. 1893년 11월 전봉준 등 동학 접주들이 모여 혁명계획을 세운 공동결의문이 담긴 사발통문에 다른 여러 동학 접주들의 서명이 있었고, 전봉준이 체포되어 재판을 끝낸 최종판결보고서에서도 그를 "비도의 피수로 접주라 부르고"라고 한 것을 보아 전봉준의 동학교도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황선희 교수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동학은 종교로 시작하였지만 교리에 함축되어 있는 후천개벽의 혁명성으로 인하여 점차 종교철학, 사회사상을 진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동학운동도 정치성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갑오동학농민운동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평가하려면 동학사상과 사회적

기능을 연계하여 전체사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접근할 때 가능할 것이다.

1990년대는 갑오동학농민운동의 개념과 호칭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었는데 혁명, 의거, 전쟁 반란 가운데 어느 것으로 명명할 것인가에 논쟁이 집중되었다. 주로 동학연계설(독학혁명,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과 동학분리론(갑오농민전쟁)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동학분리론을 주장하는 학계의 주요쟁점은 대략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운동의 주체세력을 농민으로 보는 것이다. 집강소와 도소의 역할을 비교 분석하거나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민층의 변혁세력화 과정에 의거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전쟁론은 논리전개로 보아 비약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도소의 농민중에 다수의 동학교도가 있었고 농민들 가운데 동학에 입교하는 수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집강소의 존재의미 또한 폐정개혁안을 살펴보았을 때, 동학의 근대적 정치사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운동의 원동력을 농민의식 성장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농민의식의 변화기반을 향회나 대동사상에서 찾고있는 일부 동학연계설 학자가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다. 향회나 대동의식은 양반지배층이 향촌자치를 위한 수단, 방법으로 시작한 것이어서 농민의식 성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동학 교세와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갑오동학농민운동 당시 동학교세가 전라도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과 농민군이 대원군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들어 순수한 민중의거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학의 교세는 1888년 최시형이 전주와 삼례 지역을 순회한 이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황해도에 까지 교세가 미쳤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1894년 봉기 당시에 관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봉기한 것을 보아도 동학교세는 전국적으로 퍼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는 전봉준의 동학교도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봉준은 입도이유로 동학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인 보국안민사상에 공감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또 동학접주의 직임을 맡은 상태에서 농민봉기를 주도하였다. 또 고부민란 때에도 58주의 동학접주들에게 격문을 발송함으로써 동학농민군 동원을 가능케 하였다.

동학외피설과 관련하여 전봉준이 동학교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분이 신복룡 교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신복룡 교수가 또다시 '전봉준은 동학교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81년 「實錄 全琫準」³⁾과 「東學革命의 旗手 全琫準」⁴⁾, 그리고 그의 저서 『全琫準의 生涯와 思想』⁵⁾ 등에서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신 교수가 다시 '전봉준이 동학교도가 아니었다'라는 주장⁶⁾ 역시 당시 논리의 재론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 교수의 편협적 주장에 대해 그동안 여러 번 반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 교수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가 20여 년 전에 「실록 전봉준」에서 주장 하였던 논리와 최근 『동아일보』에서 주장하였던 논리를 먼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실록 전봉준」

첫째, 1차 신문에서 자신의 직업을 선비(以士爲業)라고 대답하였을 뿐 '동학'과 관련하여 직업을 말하지 않았다.

둘째, '동학'을 믿어도 별로 이득이 없다.

셋째, 1894년 정월에 처음으로 기포하여 전주성을 물러날 때까지 그의 어느 직함에도 '동학'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으며, 그가 쓴 격문과 폐정개혁안 그리고 소청서에도 '동학'을 비호하거나 교조 대신사(최제우)의 신원에 관한 내용, 동학의 교리에 대한 설명이나 찬양이 없다.

넷째, 전봉준의 입도의식과 신앙고백을 한 사실이 없다.

다섯째, 그가 고부 접주였다는 사실을 아무런 무리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3) 신복룡, 「實錄 全琫準」, 『월간조선』9월호, 1981.

4) 한국일보, 1983년 1월 23일자.

5) 신복룡, 「그는 과연 東學徒였을까?」, 『全琫準의 生涯와 思想』, 養英閣, 1982.

6) 『동아일보』, 2001년 6월 2일자.

여섯째, 접주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일곱째, 결국 전봉준이 동학교도였다거나 아니면 고부의 접주였다는 주장이 그가 동학혁명을 주도한 지도자라는 선입견에서 온 성급한 단정이거나 아니면 영웅을 자신의 동일시를 통해 위광효과(威光效果)를 얻으려는 동학교단측의 일방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동아일보』

첫째, 종교학자 존 폴스의 '(1)종교적 체험을 겪은 후 (2)그 종교에 귀의하고 (3)기도하고 헌신하면서 (4)예배에 참석한 연후에야 완전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는 서양종교학의 이론을 대입하여 전봉준이 어느 단계에도 입증이 되지 않는다.

둘째, 동학을 '몹시 좋아한다'는 것과 '동학을 믿는다'의 비약적 해석

셋째, 1차 신문과정에서 '주접(住接)'의 해석

넷째, 전봉준이 서당의 선생으로 동학을 가르친 바가 없다는 사실

다섯째, 타의에 의해 동학의 접주가 되었다는 사실로 진정한 동학도가 아니라는 사실

여섯째, 영웅과 자신들의 동일시를 통해 효과를 얻으려는 교단측과 학문적 수련이 철저하지 못한 몇몇 학자의 일방적 해석

일곱째, 따라서 동학혁명의 성격은 민란의 요소가 독립변수이고 종교는 종속변수이다.

이상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20년 전에 주장한 것이나 지금 주장한 것이나 별반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으로 구차스럽기만 한 논쟁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당시 교단 측에서는 표영삼 상주선도사⁷⁾와 학계 측에서는 김창수 동국대 교수⁸⁾가 각각 반론을 제기하였으며, 『한국일보』에 대해서도 박충남 씨가 반박한 바 있다.⁹⁾ 필자

7) 표영삼, 「全琿準은 東學教徒이다:申福龍 교수의 해석에 이의 있다」, 『월간 조선』 12월호, 1981년 및 표영삼, 「동학접주 전봉준」, 『신인간』 393호, 1981. 11·12월 합병호.

8) 김창수, 「全琿準과 東學革命」, 韓國思想發表會, 1981년 11월 25일 및 김창수, 「全琿準과 東學革命」, 『신인간』 394호, 1982. 1.

9) 박충남, 「번복된 학자의 양심-신복룡 교수의 한국일보 기사를 읽고」, 『신인간』 406호, 1983. 3.

는 앞서 반론한 선학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새로 발굴된 사료를 통해 신 교수의 견강부회(牽強附會)를 논박하고자 한다.

신 교수는 전봉준을 동학교도로 기록한 최초의 저술을 장도빈(張道斌)의 『갑오동학란과 전봉준』¹⁰⁾으로, 천도교 측의 기록으로는 이돈화의 『천도교창건사』¹¹⁾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봉준이 동학교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봉준공초(全奉準供草)」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우선 전봉준이 동학교인임을 기록하고 있는 사료를 살펴보자. 학계측에서는 앞서 신 교수가 지적한 장도빈이 『갑오동학란과 전봉준』에서 '전봉준이 웅도(雄圖)를 펴기 위해 1874년경에 동학에 입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¹²⁾, 김상기 교수는 『東學과 東學亂』에서 '전봉준이 1890년에 이르러 그의 용무지지(用武之地)가 동학교문에 있음을 발견하고 비로소 서장옥의 부하인 황해일의 소개로 동학에 입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그리고 교단측 기록으로는 이돈화의 『천도교창건사』에 '전봉준은 30세(필자:1884)에 도에 드러 수도에 극진하더니'로¹⁴⁾, 오지영의 『동학사』에는 '무자년(필자: 1888)에 손화중 선생을 만나 도에 참여하여'라고¹⁵⁾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전봉준이 동학에 입도한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자마다 차이를 보고 있으나, 필자는 오지영의 입도설을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오지영은 여산(驪山: 지금의 익산) 출신으로 동학혁명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정황에 가장 밝았기 때문이다. 오지영의 입도설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사료로는 『종리원사부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¹⁶⁾와 『남원군동학사南原郡東學史』¹⁷⁾ 그리고 『고부중

10) 장도빈, 『甲午東學亂과 全奉準』, 덕흥서림, 1926.

11)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天道敎中央宗理院, 1933.

12) 장도빈, 앞의 책, 18면.

13) 김상기, 『동학과 동학란』, 대성출판사, 1947, 78-79면.

14) 이돈화, 앞의 책, 제2편 57면.

15) 오지영, 『東學史』, 영창서관, 1940, 161면.

리원연혁古阜宗理院沿革』(1931)이 있다. 『남원군동학사』는 전봉준과 함께 1893년 삼례교조신원운동에 참가하였던 유태홍(柳泰洪)¹⁸⁾의 구술을 남원군종리원 주임종리사 최병현(崔炳鉉)이 기록한 것이다. 이 사료에서 전봉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三十三(1892 : 필자)年 壬辰秋에 大神師 伸冤次로 各道敎人이 全州 參禮驛에 會集할 時에 本郡道人 數百이 往參하야 義訟할 새 官吏의 壓迫危險으로써 訴狀을 告呈할人이 읍서서 疑訝遑恐中에 左道 柳泰洪, 右道 全奉準氏가 自願出頭하야 觀察府에 訴狀을 提呈 則....

또한 『고부종리원연혁』에는 1889년에 전봉준 손화중 손여옥(孫汝玉) 김개남 등이 포교활동에 종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전봉준이 1888년에 동

- 16) 『宗理院史附東學史』는 南原郡宗理院의 沿革과 인근에 있는 雲峰郡敎區史 및 求禮郡敎區史의 연역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데 특히 다른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봉준의 행적이 실려있어 주목되는 사료이다. 물론 다른 사료와 비교하여 검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著者인 최병현이 1892년 삼례집회 당시 전봉준과 함께 관찰부에 呈訴한 체힘당사자인 柳泰洪의 口述을 1924년 9월에 정리한 것으로 기록의 상세함이나 정확성으로 미루어 보아 믿을 수 있는 사료로 보인다.
- 17) 『南原郡東學史』역시 1924년 12월에 최병현(崔炳鉉)이 국한문 혼용으로 기술한 책자로서 특히 1892년부터의 남원지방 농민군의 동향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저자가 남원지방 동학교단의 인물이라는 점과 앞서 말한 유태홍의 口述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전봉준에 관한 기록 중 특히 남원 및 전라남도에서 활약했던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18) 柳泰洪은 1867년 9월 2일 전북 남원군 이백면 남계리에서 출생하여 22세 전후인 1889년경에 동학에 입도하였다. 1894년 1년전인 1893년 삼례교조신원운동에 참가하여 전봉준과 전라좌우도를 대표로 소장을 議送하였으며, 동학혁명에서는 남원에서 김흥기, 황내문, 이규순, 이기동, 박세춘, 변흥두, 최진악, 심노환, 조동섭, 김우척 등과 운봉과 방아재에서 민보군과 전투를 치루었다. 이후 1904년 진보회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1906년 6월 19일 남원교구를 설립하는 한편 1919년 3.1운동과 1927년 신간회 남원지회 설립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9년에는 신간회 남원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49년 10월 16일 83세를 일기로 환원하였다.(출고, 「남원의 항일운동가」, 『신인간』569호, 1998. 1)

학에 입교하였다는 오지영의 동학입교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하여 1917년에 기록된 「고부교구실기」에도 전봉준이 동학교인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¹⁹⁾

다음으로 신 교수는 한 종교의 신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교적 체험을 겪은 후, 둘째 그 종교에 귀의하고, 셋째 기도하고 헌신하고, 넷째 예배에 참석한 연후에야 완전한 신자라는 종교학자 폴 존슨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봉준은 동학의 교조 수운 최제우의 신원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그 자체가 동학교인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정략적으로 훗날 동학 조직을 이용하기 위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동학을 엄금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전봉준이 교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집회에 참가한 것은 폴 존슨의 논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또 하나 밝혀둘 것은 우리 풍토에서 자생한 동학을 '신앙고백' 등 서학에서 말하는 신학적 논리로 규정 비판하려는 것은 편협한 독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오늘날 천도교에는 신앙고백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리고 신 교수는 전봉준의 직업을 '접주(接主)'라 하지 않고 '선비(士)'라 하였다 하여 동학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 또한 모순된 주장이다.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생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직(職)이나 업(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목사나 불교의 승려, 천주교의 신부의 경우 신 교수의 주장처럼 직업이라 할 수 있으나 당시 동학을 절대 금기시하던 상황에서 동학의 접주는 직업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신 교수는 전봉준이 '서당의 선생으로 아동을 가르쳤을 뿐 동학의 교리를 준행하거나 가르친 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고 동학을 탄압하던 조선 사회의 서당에서 동학의 교리를 가르친다면 이는 동학교인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곧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3·1운동 당시 일제에 검거된 천도교인 중 직업이 서당교사인 사람이 적지 않았

19) 宋在燮, 「고부교구실기」, 『천도교회월보』83호, 1917. 6, 16-17면.

는데, 신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은 서당교사였기 때문에 천도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서당교사였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유교를 신봉자라는 논리와 같다. 3.1운동의 민족대표의 한 분인 이승훈(李昇薰)은 누구나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승훈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농업’으로 밝히고 있다. 신 교수의 논리라면 이승훈 역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학교 교사가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맡은 교과보다 자신의 ‘종교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신 교수 자신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 과연 ‘교수’가 직업인지 아니면 ‘종교적 직위’가 직업인지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전봉준이 재판과정에서 ‘동학접주’라고 밝히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전봉준은 분명히 ‘접주’임을 밝히고 있다. 전봉준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선비(士)라 하였지만, 1895년 3월 7일 5차 신문에서는 “동학교도 중 접주를 차출하는 것은 누구인가?(東徒中差出接主是誰之爲)”하고 물었을 때 “모두 법헌(法憲, 최시형)이 한다(皆出於崔法憲)”고 하였으며, 또 “네가 접주가 된 것은 최시형이 차출한 것인가?(汝之爲接主崔之差出乎)”라고 물었을 때도 분명하게 “그렇다(然矣)”라고 대답하고 있다. 만약 전봉준이 동학교인이 아니었다면 굳이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供草에 의하면 전봉준은 동학의 육임인 교장(敎長), 교수(敎授), 도집(都執), 집강(執綱), 대정(大正), 중정(中正)을 비롯하여 동학의 용어인 접사(接司), 접(接), 접주(接主)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 교수는 전봉준이 재판과정에서 밝힌 “오도(吾道, 나의 도)”의 해석을 전봉준이 동학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아도(我道)”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학의 교조 수운 최제우도 동학을 “오도(吾道)”라 하였으며, 전봉준을 접주로 임명한 해월 최시형도 동학을 “오도(吾道)”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운, 해월이 표현한 오도(吾道)와 전봉준의 오도(吾道)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봉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학교인이고 접주였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인 아도(我道)보다는 오도(吾道)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신 교수는 전봉준이 동학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학혁명의 성격을 '갑오농민혁명에서는 민란의 요소가 독립변수이고, 종교는 종속변수일 뿐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독 신 교수만이 아니라 동학혁명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사발통문에 서명한 사람들은 동학교도가 아닌 일반 농민 또는 원민(冤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학혁명의 성격 규명에서도 동학외피설(東學外皮說)을 주장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이 역시 사료의 철저한 분석이 따르지 않은 일부 학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알다시피 1894년 1월 10일 고부기포는 전봉준을 비롯하여 송대화(宋大和)·김도삼(金道三)·송국섭(宋國燮)·최경선(崔景善) 등 사발통문에 참여한 20여 명의 주도로 고부군수 조병갑의 가림주구에 대해 항거한 것인데, 사발통문에 서명한 인물의 이후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활동은 동학혁명의 성격 규명에서 동학이 '외피설'이나 '주도설'이냐의 중요한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즉 고부기포 역시 전봉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당시 사발통문에 참여한 인물에 대해서도 세밀히 분석해야 동학혁명의 성격을 밝히는데 올바른 평가를 내릴

20) 동학혁명의 성격 규명에서 '동학외피설'은 북한 학계에서 주로 주장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동학외피설을 제기하였으며 대표적인 논고로는 오길보(「갑오농민전쟁과 동학」, 『역사과학』3, 1959; 「1894-1895년(갑오)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역사과학』3, 1964)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김용섭이 「전봉준 공초의 분석-동학란의 성격일반-」(사학연구 제2호, 1958)에 처음으로 주장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널리 확산되었는데 동학외피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논고로는 박종근(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에 대하여, 『동학혁명의 연구』, 백산서당, 1982), 정창렬(『갑오농민전쟁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동학과 농민전쟁」,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김용섭(「동학란연구론」, 『역사교육』3, 역사교육연구회, 1985), 안병욱(「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연구현황」, 『한국근현대사연구입문』, 역사비평사, 1988) 등이 있다.

수 있다.

사발통문에 서명하였던 인물은 모두 동학혁명에 참여하였으나 전봉준·최경선 등은 일본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러나 목숨을 부지하였던 송대화·송주성(宋柱晟)·이성하(李成夏)·최흥렬(崔興烈)·송국섭·임노홍(林魯鴻) 등은 동학혁명 이후 고향을 떠나 은신하여 지내다가²¹⁾ 1904년 고향으로 돌아와 진보회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1906년 고부교구를 설립할 당시 핵심인물로 활동하였다. 고부기포 당시 도소이며 사발통문을 작성하였는데 장소를 제공하였던 송두호(宋斗浩)와 그의 종형 송주옥(宋柱玉)은 나주 옥중에서 희생되었으며, 사발통문에 참여하였던 이문형(李文炯)의 종제인 이원형(李元炯)과 이봉근(李鳳根)의 종제인 이춘근(李春根) 등도 고부교구 설립에 적극 참여하였다.²²⁾ 특히 송두호의 아들인 송대화는 1891년 동학에 입도하여 봉훈·교훈·강도원·교구장 등의 원주직을 역임하였다.²³⁾ 송국섭은 교구장²⁴⁾·전제원²⁵⁾·공선원²⁶⁾·강도원²⁷⁾, 송주성은 교구장²⁸⁾, 임노홍은 공선원²⁹⁾, 이성하는 공선원³⁰⁾·전교사³¹⁾·금융원³²⁾, 최흥렬은 전교사³³⁾를 각각 역임

21) 동학혁명 이후 동학교인의 참상을 「고부교구실기」에서는 “비록 조그만 혐의만 있더라도 동학군 접주라고 관청에 말하여 곧 잡아다가 죽이게 하니 이때에 다시 도 믿는 사람의 씨가 어디 있으리오.”라고 기록하고 있다.

22) 宋在燮, 「고부교구실기」, 『천도교회월보』83호, 1917. 6, 16-18면.

23) 「還元一束」, 『天道教會月報』112호, 1919. 12, 74면.

24)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창간호, 1910. 8, 55면.

25)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34호, 1913. 5, 43면.

26)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78호, 1917. 1, 41면.

27)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79호, 1917. 2, 41면.

28)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30호, 1913. 1, 45면.

29)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8호, 1911. 3, 45면.

30)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55호, 1915. 1, 35면.

31)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78호, 1917. 1, 41면.

32)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79호, 1917. 2, 41면.

하였다.

이처럼 사발통문에 서명한 인물은 바로 동학도인이었으며, 이들은 후일 천도교인으로 활동하였다. 즉 1894년 1월 10일 고부 기포에 참가한 주도인물은 일반농민 또는 원민이 아니라 바로 동학도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 교수의 주장처럼 단순히 전봉준을 이용하여 위광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천도교단 측의 호교론(護敎論)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94년 1월의 고부기포, 3월의 백산기포, 9월의 청산기포 등은 모두 동학교단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동학혁명은 단순한 호교론이 아니라 주도론임을 인식해야 한다.

3. 동학혁명의 지역적 전개

동학혁명은 1894년 1월 10일 고부기포를 기점으로 전개되었다. 그동안 동학혁명은 무장기포, 백산대회를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동학혁명의 기점은 고부기포가 첫 기점임을 밝힌 바 있다.³⁴⁾ 고부에서 기포한 동학혁명은 금산지역의 적극적 참여와 호남지역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3월 25일 백산에서 대회를 갖고 혁명군으로 새로운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처럼 고부에서 비롯된 동학혁명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이어 호서지역에서 호응하기도 하였다. 5월 31일 전주화약을 맺고 호남지역에 집강소를 설치 농민통치를 전개하였지만, 일제의 경복궁점령으로 동학혁명은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의 동학군은 삼례기포³⁵⁾에서 재기포

33) 「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86호, 1917. 9, 39면.

34) 줄고, 「동학혁명과 「백산」의 역사적 의의」,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288-292쪽을 참조할 것.

35) 이에 대해서는 앞의 책, 「제2차 동학혁명과 삼례기포」를 참조할 것.

를 하였으며, 해월 최시형의 기포령에 따라 호서지역, 영남지역, 강원지역과 해서지역까지 동학혁명에 참가하였다. 이에 대해 지역별 동학혁명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호남지역

호남지역은 동학혁명의 주요 활동무대도 전 지역이 동학혁명으로 물든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좀더 지역별로 세분한다면 여섯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고부와 무장, 부안, 장성, 흥덕권이다. 이 권역은 고부기포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다. 특히 백산에 설영한 동학군은 호남지역의 동학조직을 연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권역은 고부기포, 무장기포, 백산대회 등 전봉준, 소화중, 김개남 등을 중심으로 동학혁명군을 재편하였으며, 황토현 전투에서는 관군을 크게 이겨 동학군의 기세를 올리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는 장성, 영광, 함평권이다. 이 권역은 황토현 전투 이후 동학군이 전주로 직항하지 않고 우회하면서 동학군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장성 황룡천에서 관군을 대파한 전적을 올린 곳이다. 영광을 점령할 당시 동학군의 위세는 당당하였는데, ‘깃대를 세우고 창을 들고 칼을 휘두르며, 총을 쏘고 말탄 자가 1백 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갑옷을 입고 전립을 쓴 자도 있을 정도로 당당했다’라고 하였다. 또한 함평에서는 폐정개혁을 요구하는 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셋째는 영암, 장흥, 영광, 함평, 강진권역이다. 이 권역은 삼례기포 이후에는 동학군이 호남지역에서 최대의 전투를 치룬 장흥 석대벌 전투가 진행되었던 곳이다. 이 전투로 호남지역의 동학군은 재기할 수 있는 여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석대벌 전투에서 패한 동학군은 제주도 등 남해안 섬으로 은신하며 후일을 도모하였다.

넷째는 전주, 삼례권역이다. 이 권역은 동학혁명 최대의 전과를 올린 전주성을 무혈로 점령한 곳이다. 이를 계기로 전주화약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통치가 실제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전주성 점령 후 홍계훈의 관군과 수차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렀다.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정부와 화약을 체결한 동학군은 각 지역으로 돌아가 집강소를 설치 폐정개혁을 단행하면서 동학이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의 내정간섭과 경복궁 점령으로 국가의 위기에 직면하자 호남지역 동학군은 9월 13일 삼례에서 재기포를 하였다. 이후 동학혁명은 호남지역을 벗어나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이 마지막으로 전투를 치른 원평 태인 전투가 전개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다섯째는 남원권역이다. 이 권역은 전주화약 이후 김개남이 주둔하였던 곳이며, 김개남이 청주를 점령하기 위해 진출한 이후에는 유태홍 등 남원지역 중심의 동학군이 방아재전투 등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남원지역은 아직도 반동학적 정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여섯째는 광양, 여수, 순천권역이다. 이 권역은 전라도의 동남부지역으로 동학군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섬진강을 따라 경상도지역과도 연대를 하여 영호대도소를 설치하고 순천도호부를 점령하였다. 이 지역에서 동학군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갑오년(1894) 6월경이었다. 금구접주였던 김인배가 이곳으로 파견되어 설치된 집강소를 지휘하였다. 김인배가 이끄는 동학군은 낙안읍성을 점령하였으며, 하동군 동학군을 지원하여 진주까지 공격하였다. 그러나 지식영의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에 패한 이 지역 동학군은 광양, 여수로 후퇴하였다. 한때 10만여 명의 동학군이 반제 반외세를 외쳤으나 섬진강을 핏물로 물들이고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밖에 호남지역에는 나주권을 들 수 있다. 이 권역은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동학군에 집강소를 설치하지 못한 곳이다. 나주목사 민종열과 동학접주 오권선이 치열하게 전투를 전개한 곳이다. 전봉준도 나주에 집강소를 설치하기 위해 민종열과 담판을 하였지만 결국 집강소 설치는 하지 못하였다.

2) 호서지역

호서지역은 동학혁명 시기에 호남지역과 더불어 가장 광범위하게 동학혁명에 참여한 지역이다. 1894년 9월 18일 해월 최시형의 총동원령에 따라 각지에서 청산으로 집결한 동학군이 공주 우금치전투, 용산전투, 종곡전투 등 격렬하게 혁명 활동을 전개하였다. 호서지역의 경우 동학군의 지역별 활동을 크게 네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주, 논산권역이다. 이 권역은 아시다시피 전봉준의 호남지역 동학군과 손병희의 호서지역 동학군이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고, 공주 우금치 일대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군과 치열하게 격전을 전개하였던 곳이다. 우금치전투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동학군은 월등한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퇴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동학군은 황화대, 태인, 원평, 구미란에서 관군과 전투를 전개하였고, 전봉준은 순창으로 피신하던 중 피노리에서 피체되었다. 이에 비해 호서지역 동학군은 손병희의 지휘를 받아 고부 백산-정읍-장성 갈재-임실-장수-무주-영동 용산-황간-청산-보은 북실-음성 되자니를 거쳐 후퇴하였다.³⁶⁾ 특히 황화대는 전봉준이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재기를 도모하였지만 전력의 열세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금산, 진산권역이다. 이 권역은 호남지역과 연대를 하여 동학혁명에 적극 참여하였다. 1894년 고부에서 전봉준이 기포하자 가장 먼저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부안에서 전봉준의 동학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한 후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우금치전투까지 참여하였다. 특히 금산지역 동학군은 보부상과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금산지역이 인삼을 주요특산물로 생산하였던 관계로 보부상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곳이다. 이에 보부상은 관군에 협력하여 동학군을 토

36) 이에 대해서는 신영우, 「군암장 임동호씨 약력에 나타난 북점농민군의 이동로와 해월 최시형」을 참조할 것. 이 논문은 지난 10월 22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한국사연구회의 주최로 개최된 <새로운 자료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의미> 이라는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벌하는데 앞장섰다.

셋째는 서산, 태안, 당진, 예산권이다. 이 권역은 내포라고 불린다. 지 지역의 동학군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 이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태안에서 기포한 동학군은 태안관아와 서산관아를 점령하였고, 이후 예산, 아산지역의 동학군과 연합하여 당진 승전곡전투, 신례원 전투에서 승리한 후 홍주성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홍주성에서 수많은 동학군의 희생을 치루고 후퇴하여 해미읍성-서산 매봉전투를 막바지로 해산하였다.

넷째는 충주, 음성권이다. 이 권역은 호서지역 동북부지역으로, 이 지역 동학군은 일본군의 병참부를 공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청풍 출신의 성두환 대접주는 가흥에 있는 일본군 병참부를 공격 전선을 끊는 등 대담한 활동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동학군은 괴산관아를 점령하는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다섯째는 영동과 황간, 보은과 청산권이다. 이 권역은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을 내렸을 때 초기 활동과 우금치전투 이후 후퇴 과정에서 용산 전투, 복실(종곡) 전투, 되자니 전투 등 크고 작은 전투를 전개하였던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호서지역 초기와 후기 활동을 연관 지어 볼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특히 해월 최시형을 체포하기 위해 청산의 동학교인을 소탕하고 가옥 2백여 채를 불살라 버리는 극심한 탄압이 뒤따랐던 지역이기도 하다.

3) 강원지역

강원도 지역은 일찍부터 동학 교세가 형성되었지만 동학혁명에 참여한 것은 해월 최시형의 총기포령이 내려진 이후였다. 크게 세분화한다면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홍천을 중심으로 한 영서권이고, 다른 하나는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권이다.

먼저 영서권은 홍천의 차기석과 오창섭, 심상현이 중심이 되어 청산으로 합류하고자 하였으나 가평의 민보군에 막혀 내륙지방에서 활동하였다. 동창을 점거한 후

장아춘과 서석 풍암리에서 관군과 크게 전투를 치렀으며, 이후 동학군의 섬멸작전으로 내면으로 후퇴하였다. 동학군의 추격과 이에 대한 동학군의 대응이 가장 처절하게 남겨진 곳이 이 지역 동학군의 활동이다.

다음으로 영동권의 동학군은 성두환 등 호서지역 동학군과 연대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평창, 영월, 정선 지역의 동학군은 평창 후평에 집결한 다음 대관령을 넘어 강릉관아를 점령하였다. 이어 선교장을 점령하려고 하였으나 이회원의 책략에 넘어가 기습공격을 받고 평창으로 후퇴하였다. 이후 강릉을 다시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민보군의 탄압으로 점차 활동이 쇠퇴하였다.

4) 영남지역

영남지역은 동학이 발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과 관련해서는 호남과 호서지역보다는 열세지역이다. 이는 영남지역이 성리학의 본향으로도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 조직 또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기에는 남부지역의 진주 하동권과 동부지역의 상주, 김천권, 북서지역의 문경, 예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문경 예천권의 동학혁명은 최맹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예천지역 동학군의 활동은 호남지역의 동학군이 활동하지 이에 부응하여 공공연히 활동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갑오년 9월 이후였다. 즉 해월 최시형의 기포령 이후였다. 용기상 출신인 최맹순은 현 문경군 소야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동학조직을 규합하였다. 최맹순은 예천관아를 점거하는 것을 미루고 예천 읍내를 포위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지역 민보군을 조직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결국 민보군과 전개한 석문 전투, 한천 전투, 금당실 전투에서 동학군은 패배하고 말았다.

상주 김천권의 동학군 활동은 비교적 왕성하였다. 동학교단 지도부가 일찍부터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호서지역의 보은, 황간, 청산 등과 지리적으로도 매우 인접하여 동학조직이 장악하였다. 특히 상주는 갑오년 여름부터 동학군의 수중에 있

었다. 상주지역의 동학군지도자는 이 지역의 명문가문인 김현영이었다. 해월 최시형의 기포령이 내려지자 상주지역의 동학군은 상주와 선산을 점거한 일본군 병참부를 공략하고자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군 낙동 병참부는 상주읍내에 있던 동학군을 기습 선제공격하였다. 동학군은 월등한 화력 앞에 퇴패하였다. 김천지역은 편보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편보언은 김천장터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진주 하동권은 앞서 언급하였던 순천권과 연계되어 활동한 권역이다. 진주의 접주 손은석과 백도홍은 동학조직을 강화하여 진주를 비롯하여 사천, 진양, 곤양, 남해 일대를 장악하였다. 진주 하동권의 동학군은 호남에서 기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갑오년 4월에 이미 기포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대응으로 많은 동학군이 희생되었다. 이에 동학군은 진주성을 점령하고자 하였으나 병마절도사 민준호의 사과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후 동학군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자 정부는 일본군을 동원하여 동학군 탄압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전투현장이 고성산이다.

5) 경기지역

경기지역의 동학군 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경기지역의 동학군이 해월 최시형의 기포령에 따라 호서지역으로 이동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동학군은 손병희의 지휘 아래 우금치 전투를 비롯하여 음성 되자니 전투까지 함께 활동하였다. 다만 수원지역과 이천지역에서 소규모의 전투가 전개되었다. 특히 수원에서는 김정현 등 접주들이 희생되었고, 이천의 부락산(현 설봉산)과 마교리 등지에서 전투가 전개되었다.

6) 해서지역

해서지역의 동학혁명은 9월 총기포령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주로 황해도

서해연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해주와 강령 등을 점거하였다. 당시 팔봉접주였던 김구는 산포수들과 선봉에서 활약하였다. 해주감영을 점거한 동학군은 공당을 부수고 군기를 탈취하여 무장을 강화하였다. 양곡 매입을 위해 파견된 일본군 일대가 재령에서 동학군에 피습 2명이 살해당하자 일본군은 본격적인 동학군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에 해서지역 동학군은 점차 조직이 와해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듬해 2월까지 동학군의 투쟁은 지속되었다.

4. 지역별 동학혁명의 연구성과와 과제

그동안 동학혁명의 연구사를 정리한 논문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우윤과 황선희의 논문이다. 우윤은 「고종조 농민항쟁,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를 통해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³⁷⁾ 이 글은 동학혁명뿐만 아니라 동학혁명 이전의 민란까지 다루고 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 I. 머리말
- II. 고종조 농민항쟁, 갑오농민전쟁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III.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연구사 검토
- IV. 갑오농민전쟁과 동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V. 주체세력에 관한 연구
- VI. 농민군과 개화파의 제휴문제
- VII. 전국 및 지역적 전개상황
- VIII. 인식론과 방법론적 과제

37) 우윤, 「고종조 농민항쟁, 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사론』25, 國史編纂委員會, 1995.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글은 동학혁명과 관련된 논쟁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학과 동학혁명과의 관계성, 동학혁명의 주체 세력, 동학군과 개회파와의 제휴 문제, 동학혁명에 대한 인식 등을 필자의 의견을 첨삭하면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 글은 논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분히 동학과 동학혁명을 분리시켜 보고자 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황선희는 「동학의 민족운동 연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정리한 바 있다.³⁸⁾ 황선희는 동학혁명의 연구 성과 정리를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즉 <1980년대 이전의 연구>와 <1990년대 이후의 연구>로 나누어 연구 동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동학혁명의 연구 성과는 동학과 동학혁명의 연관성을 이념의 제공과 조직, 참여 과정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연구성과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다. 그러나 동학혁명의 지역적 전개 과정을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이기도 하다. 동학혁명의 지역별 연구 성과는 동학혁명1백주년을 기해 많은 부분이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³⁹⁾과 「농민전쟁의 지역사례」라 할 수 있다.⁴⁰⁾ 이 두 연구 성과는 논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학혁명에 대한 인식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동학농민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1894년 농민전쟁’이다. 즉 동학과 동학혁명이 연관성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자

38) 황선희, 「동학의 민족운동 연구」, 『동학·천도교 역사의 재조명』, 모시는사람들, 2009.

39)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1995.

40)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4, 역사비평사, 1995, 209-443쪽이다.

◇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 1894년 농민전쟁기 호남지방 농민군의 동향 / 박찬승
- 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 / 신영우
- 1894년의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전쟁 / 이윤갑
- 1894년 강원도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대응 / 박준성
- 황해도지방의 농민전쟁의 전개와 성격 / 송찬섭

◇ 「농민전쟁의 지역사례」

- 1894년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 / 양진석
- 1894년 경상도지역의 농민전쟁 / 박진태
- 1894년 호남 남부지방의 농민전쟁 / 박찬승
-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 정은경

이 두 연구 성과는 광역권별로 충청도, 경상도, 호남 남부지방,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의 동학혁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동학혁명의 전개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두 연구 성과 중 충청도 지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자.

◇ 충청도지역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과정 / 신영우

1. 머리말
2. 가을 봉기 이전 충청도의 상황
3.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향촌사회의 변동
4. 1894년 가을 이후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대일전쟁
5. 충청도지역 전개 과정의 특징
6. 맺음말

◇ 1894년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 / 양진석

1. 머리말
2. 1차 농민전쟁기 농민군의 활동
3. 2차 농민전쟁기 농민군의 활동
4. 반농민군세력의 동향
5. 맺음말-농민전쟁의 실패원인과 충청지역 농민전쟁의 특성

우선 신용우의 글은 동학혁명 이전 충청도의 동학교단의 동향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동학혁명기 동학조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참여하였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충청도지역의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인맥으로 얽힌 동학 조직이 토대가 되어 전개되었다”라고 하였듯이 동학조직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우는 충청도지역 동학혁명의 특성을 첫째, 복잡계열의 동학조직이었고, 둘째는 호남 지역보다 온건하였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동학혁명은 동학조직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한편 양진석의 글은 동학혁명 이전의 동학교인의 활동도 ‘농민군’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즉 “충청지역 농민들은 1차 전농민쟁 이전에도 간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893년 3월 보은집회를 기점으로 동학교도들이 중심이 된 농민들의 활동은 그 예이다”라고 하여, 보은교조신원운동도 농민군의 활동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충청지역의 농민군 활동은 동학교단과 연계가 그다지 없거나, 혹은 동학교단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은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동학조직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지역의 동학혁명의 특성은 “충청지역

41)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일본측에서 남겨진 사료를 인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학혁명 당시 일본은 첩자나 정보원을 풀어 동학혁명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정확한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투와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겠지만 동학조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떠도는 전문이나 간접적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북접이 주도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상반적인 측면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혁명의 지역적 연구 성과도 동학조직의 관련성을 인정하느냐, 가능하면 배제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편 천도교에서 동학연구가로 널리 알려진 표영삼도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영삼의 지역별 동학혁명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라도 남서부지역 혁명운동
- 나주지역 동학혁명
- 경상남서부 동학혁명
- 충청서부지역 동학혁명
- 장흥지역 동학혁명
- 전라좌도 남원지역 동학혁명운동
- 금산지역의 동학혁명

표영삼의 글은 지역적 동학혁명을 분석하면서 동학혁명기만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연구하고자 하는 지역에 동학이 언제부터 포교되었으며, 인적 조직 관계를 세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학조직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동학혁명에 동학조직이 참여하는 과정을 각종 사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표영삼의 연구 성과의 특징은 동학과 동학혁명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영삼은 지역별 동학혁명의 연구는 비록 7편에 불과하지만 광역권보다는 군단위의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러한 면에서는 매우 지역의 동학혁명을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또한 사료적 접근만이 아니라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다른 연구성과와 다른 장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필자도 지역별로 동학혁명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바 있다.⁴²⁾

홍주성의 동학혁명과 의병운동의 재검토
동학혁명 이후 동학군의 동향과 활동
박인호계 동학군의 동학혁명과 그 이후 동향
원주지역 동학혁명의 배경
동학혁명과 '백산'의 역사적 의의
금산지역의 제1차 동학혁명의 전개
제2차 동학혁명과 삼례기포
정기지역의 동학혁명과 동학군의 참여과정

이상의 글들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동학과 동학혁명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동학혁명 과정에 지역이 가지는 위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첫째 문제는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던 동학군의 동향을 추적하였다.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던 대부분의 동학군은 동학혁명 이후 고향을 등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전히 동학을 포교하였으며, 1904년 동학교단이 전개하였던 갑진 개화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동학이 천도교를 대고천하한 후에는 지방에서 천도교 조직(교구)을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하였다. 이어 천도교에서 전개하였던 3.1운동, 신문화운동, 멸왜기도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던 '고부지역'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는 지역별로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연구성과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갖는 위상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에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학혁명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지역별 연구 성과는 그 위상을 정립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42) 성주현, 『동학과 동학혁명의 재인식』, 국학자료원, 2010.

끝으로 그 밖의 지역별 동학혁명의 연구 성과를 『동학혁명사논저목록』⁴³⁾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⁴⁴⁾

◇ 호남지역

남원권 동학농민전쟁의 전개(강성현) /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김양식) / 전남지역의 동학농민전쟁(박찬승) / 나주지역 동학농민전쟁과 향리층의 대응(배항섭) / 장흥, 강진지역의 농민전쟁 전개와 역사적 성격(우윤) / 동학농민혁명과 광주·전남(이상식) / 동학농민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장성전투의 의미(이이화) / 전라도 임실현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이진영) / 무장기포의 성립과 전라도 고창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이진영) / 전라도 무주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양상(이진영) / 동학농민군의 나주성 싸움과 금성정의록의 문헌적 고찰(최현식) / 고부와 갑오동학혁명(최현식)

◇ 호서지역

1894년 금산지방의 농민항쟁(김형욱) / 청주지선의 전선가설과 충청도 동학농민전쟁(김정기) / 충청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동학교단(배항섭) / 충청도의 동학교단과 농민전쟁(신영우) / 1894년 동학농민군의 청주성 점거시도(신영우) / 1894년 금산지역 의회군의 조직과 활동(양승률) / 충청지역 농민전쟁의 전개양상(양진석) / 충남 서북부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이도행) / 동학농민혁명과 충북, 그리고 그 정신(이이화) / 내포지역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이인화) / 충청도 내포지역의 동학농민전쟁 전개양상과 특성(이진영) / 1894년 고부민란 연구(장영민) / 고부민란의 연구(정창렬) / 동학농민전쟁과 공주전투(박병수) / 1894년 10월-11월 금산, 진산에서의 김개남과

43)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논저목록』, 2006.

44) 최근 들어 지역별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등이 결성되어 해당 지역의 동학혁명에 대한 연구가 매우 급진전 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금산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 등이 있다.

일본군의 활동(이병규) /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최덕수)

◇ 경상지역

서부경남 동학운동연구(김범수) /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김준형) /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영남지역의 동학농민전쟁 - 김산지역을 중심으로(신영우) / 1894년 영남 금산의 농민군과 양반지주층(신영우) / 영남 북서부지역 동학농민군의 세력 증대과정과 그 구성(신영우) / 동학농민전쟁과 안동(정진영) / 1894년 영남 예천의 농민군과 보수집강소(신영우) / 1894년 영남 상주의 농민군과 소모영(신영우)

◇ 경기지역

경기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군 활동-특히 수원지방과 관련하여(최홍규) / 경기지역이 동학과 동학농민군 활동(최홍규) / 경기 이천지역의 동학농민운동(최효식)

◇ 강원지역

강원도 동학의 전래와 농민항쟁(엄찬호) / 강원도 지방의 동학과 동학혁명(원영환) / 강원지역의 동학농민전쟁의 연구(이기원)

◇ 해서지역

동학농민군의 봉기와 전투-강원·황해도의 경우(한우근)

201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대사업

경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여주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설: 성 주 현

(경기대학교 문화콘텐츠 연구소 연구원 / 부천대 교수)



경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성주현 / 경기대

1. 설봉산(부악산) - 동학농민혁명 전투지



이천에 동학이 포교된 것은 수운 최제우가 포교한 시기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문헌적 자료에 나타나기는 1890년대 초이다. 후에 천도교 제3세 교조가 된 손병희는 1890년 들어 이천과 여주를 중심으로 포교를 극진히 하여 동학의 교세가 크게 확장

되었다.

손병희는 이천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충북 청원군 금암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일찍부터 봉건사회의 모순을 철저하게 인식하였다. 20대 중반 동학에 입도하여 스승인 해월 최시형을 극진히 모시고 피나는 수련을 거듭하였으며 충청도와 가까운 이천과 여주 등 경기도 지역의 포교에도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손병희 외에도 여주군 실촌면 유사리 출신이며 후일 3·1운동 33인의 한 분인 이종훈은 경기도 편의장으로서 여주·이천·안성·용인·수원 등 경기도 전역의 동학을 지휘 감독하였다. 이종훈은 1894년 9월 해월 최시형의 기포령이 내려지자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동학군 수만 명을 이끌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장터로 진출하였다가 충주 황산·괴산을 거쳐 청산 문바위골에서 통령 손병희의 좌익으로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하였다. 당시 이종훈이 지휘한 지역과 접주는 다음과 같다.

충주의 홍재길(洪在吉)·이용구(李容九)·신재련(辛在蓮), 수원의 김래현(金來鉉), 음죽의 박용구(朴容九)·권재천(權在天), 안성의 임명준(任命準)·정경수(鄭璟洙), 양지의 고재당(高在棠), 여주의 홍병기(洪秉箕)·임순호(林淳灝)·신수집(辛壽集)·임학선(林學善), 이천의 전규석(全奎錫)·전창진(全昌鎭)·이근풍(李根風), 양근의 신재준(辛在俊), 지평의 김태열(金泰悅)·이재연(李在淵), 광주의 염세환(廉世煥), 원주의 이화경(李化卿)·임순화(林淳化), 황성의 윤면호(尹冕鎬). 홍천의 차기석(車基錫)·심상현(沈相賢)·오창섭(吳昌燮)

이천의 동학군은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활동을 전개하였다. 1893년 3월 보은 척왜양창의 운동 이후 수령과 토호들의 탄압이 가중되자 1894년 봄 이용구를 대표로 하여 수천 명의 동학군이 이천에서 집결하여 이천군수에게 강경하게 항의하는 한편 감옥에 갇혀있는 동료들을 석방시켰으며 빼앗긴 재산을 되돌려 받았다.

한편 이천의 동학군은 해월 최시형의 기포령이 내리자 청산 문바위골에 집결하기

전 두 차례의 관아 습격과 부악산 전투가 있었다. 첫 번째 관아습격은 음죽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음죽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이천군으로 편입되었으나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갑오년에는 독립현이었다.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기포령을 받은 이천의 동학군은 9월 24일 기포하여 이튿날 25일 새벽 수천 명이 음죽현으로 진격하여 관아를 포위하고 군기고를 탈취하였다.

음죽현을 점령한 동학군은 9월 27일 경 부악산(현 설봉산)과 그 뒤쪽 능선 너머에 해당하는 소정리와 마교리에서 관군 및 일본군의 연합군과 대규모의 전투를 전개하였다. 부악산과 소정리·마교리의 전투에서 동학군은 관아에서 탈취한 부식들로 불을 일으켜 사용하는 화승총과 재래식 무기가 전부였다. 동학군은 신식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발이랑에 엎드려 치열하게 전투하였으나 화력이 절대 우세한 일본군에 밀려 다수의 희생자만 내고 말았다.

부악산 전투에 대한 기록은 부악산 전투에 참가하였던 동학군의 후손 장석산(張石山, 이천군 호법면 유산리)이 증언하고 있지만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에 의하면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양호우선봉일기』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천의 일본 병참소(兵站所)에서 동도(東徒) 30여 명을 체포하였다. 5명은 도망하였고 나머지 20여명 중 괴수 10여 인은 포살(砲殺) 방살(放殺)하고 그 나머지는 백방(白放)하였다.

부악산 전투 이후 이천의 동학군은 안성의 동학군과 연합하여 9월 29일 이천·안성·진천 등 3개 읍의 동헌을 점령하였다. 당시 진천현에서 양호우선봉(兩湖右先鋒) 이두황(李斗黃)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9월 29일 이천·안성의 동학군 수만 명이 관아를 포위하고 현감과 향리 관속을 결박한 후 군기고의 무기를 모조리 탈취하였다고 하였다.

이천·안성·진천을 차례로 점령한 이천의 동학군은 10월 중순 진천·괴산·보

은·청산을 거쳐 논산으로 이동하여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하여 치열한 항일투쟁에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그 외에도 서수영(徐壽永)·조인이(趙仁伊)·원석만(元石萬)·김석재(金石才) 등은 보은 길곡(吉谷) 유구현(踰龜峴) 구기점(龜基店)에서, 근곡(芹谷)의 홍복용(洪卜用)이 회인(懷仁)에서 각각 희생되었다. 그리고 접주 이정오(李正五)가 맹영재에게 희생되었다.

이처럼 이천의 동학군은 1893년 3월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4백여 명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1984년 9월 18일 동학군의 총기포령이 내려지자 9월 하순 기포하여 이천과 음죽·안성·진천 관아를 습격하고 부악산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 봉건적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호서동학군의 좌군(左軍, 이종훈)과 후군(後軍, 전규석)을 담당, 봉황산·회인·우금치 전투에 참여하여 항일전쟁을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2. 전거론 - 해월선생이 의암성사에게 도통을 전수한 곳

- 1827(순조 27) 경북 경주 - 1898(광무 2)



동학(천도교)의 제2세 교조(教祖) 최시형

최시형은 심한 탄압 속에서도 포교 활동과 교단 정비를 통해 동학을 크게 성장시켰다. 온건한 방법으로 동학을 합법화하고자 했으나 교조신원운동과 갑오농민전쟁에도 참여했다. 본관은 경주(慶州). 초명은 경상(慶翔). 자는 경오(敬悟), 호는 해월(海月). 아버지는 종수(宗秀)이며, 어머니는 월성배씨(月城裴氏)이다. 5세 때 어머니를, 1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남의 집 머슴살이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7세에 조지소(造紙所)의 고공(雇工)이 되었다. 19세 때 밀양손씨(密陽孫氏)와 결혼한 뒤 처가가 있는 흥해(興海)에서 살다가, 28세 때 경주 승광면 마북동으로 이사하여 마을 대표인 집강(執綱)이 되었는데 일을 잘 처리하여 마을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한다. 33세 때 다시 검곡(劍谷)으로 이사했는데 이 시기의 잦은 이사는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제우(崔濟愚)가 동학을 포교하기 시작한 1861년(철종 12) 6월 동학에 입교했다. 한 달에 3, 4차례씩 최제우를 찾아가 설교를 듣고 의범(儀範)을 배웠으며 집에 있을 때는 명상과 극기로 도를 닦기에 힘써 한울님의 말씀을 듣는 등 여러 가지 이적(異蹟)을 체험했다고 한다.

1862년 3월 최제우로부터 포교에 힘쓰라는 명을 받고 영해·영덕·상주·흥해·예천·청도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863년 7월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되었고, 8월 도통을 이어받았다. 그해 12월 최제우가 체포되자 관헌들의 눈을 피해 옥바라지를 하다가 최제우의 명교(命敎)를 받고 태백산·안동·평해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1864년(고종 1) 3월 최제우가 처형되자 다음해 1월 평해에서 울진으로 거주를 옮겨 최제우의 부인과 아들을 보살폈다.

1864년 해 6월 영양으로 이사한 후 수도에 힘써 1년에 4차례씩 49일간 기도했으며 『동경대전』(東經大全)·『용담유사』(龍潭遺詞)를 외워 받아쓰게 하여 교도들에게 전했다.

1866년 10월, 최제우의 탄신일에 모여든 교도들과 함께 계를 조직하기로 의견을

모이고, 1년에 2차례의 모임을 통해 흩어진 교도들을 재결속시키고 신앙을 다져나갔다.

1875년에는 “도(道)는 용시용활(用時用活)하는 데 있으니 때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고 하여 이름을 때를 따라 순응한다는 뜻의 시형(時亨)으로 바꾸었다.

1878년에 접소(接所)를 열고 교도들에게 접제(接制)의 통문(通文)을 돌려 최제우의 뜻에 따라 도를 펼 것을 알렸다.

1880년 5월에는 인제군 김현수(金顯洙)의 집에 경전간행소를 세우고 『동경대전』을 간행했다.

1881년에는 단양 샘골 여규덕(呂圭德) 집에 경전간행소를 마련하여 『용담유사』를 간행했다.

1883년에는 목천군 김은경(金殷卿)의 집에 간행소를 세우고 『동경대전』 1,000여부를 간행·보급했다.

1884년에는 교장(敎長)·교수(敎授)·도집(都執)·집강(執綱)·대정(大正)·중정(中正)의 육임제(六任制)를 정하여 교단을 정비했으며 교세도 확장했다.

1892년 7월, 호남의 접주 서인주(徐仁周)·서병학(徐丙鶴)이 찾아와 교조신원운동을 펼 것을 주장하자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이들이 독자적으로 충청도관찰사에게 소장을 내고, 많은 교도들도 교조신원운동을 주장하자 이에 동의하여, 11월 삼례역(參禮驛)에 신도들을 모집, 교조신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신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12월에는 정부에 상소문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

이에 1893년 2월 서울로 상경하여 광화문 앞에서 복합상소를 올리도록 했다. “귀가하여 생업에 종사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정부의 대답을 듣고 해산했으나 이후 탄압이 더 심해질 뿐이었다.

이에 1893년 3월, 2만여 명의 신도들이 보은에 집결하여 교조신원과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내세우면서 약 20일간 시위를 계속했다. 그해 7월 서병학 등이 정부를 공격하고 국가를 혁신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때가 아니라고 하여 반대했다.

1894년 1월, 전봉준(全琫準)이 주도한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갑오농민전쟁이 일

어났으나 처음에는 때가 아니라 하여 반대하다가 5월에 전주화약을 맺고 일단 해산한 농민군이 10월 다시 봉기할 때 전체 동학교도에게 총기포(總起包)령을 내렸다.

1894년 12월말 갑오농민전쟁이 진압되자 피신생활을 하면서 포교에 힘을 기울였다.

1897년 해월 최시형은 의암 손병희(孫秉熙)에게 도통을 전수했다.

1898년 3월 원주 송골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6월 교수형을 당했다.

최시형은 처음 설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귀천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피력했으며, 그 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한울을 키워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동학이 기본임을 알려주는 양천주설(養天主說), 신과 사람이 직접 합일된다는 향아설위(向我設位), 한울과 사람과 물(物)을 공경하라는 삼경설(三敬說), 세상 만물이 한울의 기운으로 생긴 것이니 사람이 다른 물건을 먹는 것은 곧 한울이 한울을 먹는 것이라는 이천식천설(以天食天說) 등 많은 법설을 남겼다. 또 우(愚)·묵(默)·눌(訥)을 강조하여 새 세상이 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니 인위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무저항의 사상을 강조했다.

3. 앵산동 / 제례 개벽-향벽설위를 향아설위로 개벽

이천군 설성면 앵산동-새로운 제사의 모형 향아설위 제정 이천군 설성면 앵산동은 동학의 제2세 교조 해월 최시형이 포덕 38년 2월부터 7개월 동안 계시면서 교회 의식의 틀을 마련한 곳으로서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당시 유교사회의 전통제례의 의식인 향벽설위(向壁設位)를 혁신한 향아설위(向我設位)의 제례법을 제정, 실행하였으며 동학혁명 이후 교단의 조직을 재정비한 것 등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앵산동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97년 2월에 신사-음성군 앵산동(陰城郡 鶯山洞)으로 이우하시거늘 청암(淸菴=權秉憲)이 진알(進謁)하니 신사-도인내왕에 지목이 갱기(更起)할가 염려하야 구·의·송(龜義松) 삼암(三菴)으로 하여금 각처에 문유(文諭=글로 타이름)케 하고, 도인(道人)



내왕함을 금과(禁過)하고, 육임첩(六任帖)차출을 정지하고 도제에게 위왈(謂曰) 종금(從今=이제부터)으로는 경작위업(농사를 짓는 것)하야 천명을 사(기다림)하라 하시다.

시시(是時)에 각처 두령이 신밀(慎密) 내왕하니 신사-왈 이배(爾輩)의 수도할 바는 오직 대성대천(大性大天)이오 실행할 바는 오직 성경신(誠敬信)이니 영고화복(榮枯禍福)은 흥중에 물치(勿置)하라 하시다.

4월 5일에 신사-도제에게 위왈, 금년 향례는 향아설위(向我設位)하되 인인이 각각 일탁(一卓)을 설하고 전품(奠品=올리는 음식물)은 호말도 차등이 무케하라 하시고 인이 천령을 시(侍)하얏스니 신시아심(神是我心)의 추상이요 예(禮)난 내아심(乃我心)의 기념(紀念)이라. 자고로 향례의 제(際)에 벽을 의(依)하야 위를 설함은 시천기선(是天己先)의 사니라. 부모의 사후에 정령이 하처에 재하며 선사의 사후에 정령이 하처에 재할까. 부모의 정령은 자손의 심령과 융합하였을 것이요, 선사의 정령은 제자의 심령에

융합하였을 것이라. 고로 선대역조의 정령은 후대역조의 정령과 화합하였을 것이라. 연즉 아-부모를 위하든지 선사를 위하든지 향사(享祀)할 시에 기 위를 받드시 나에게 의(依)하여 설함이 가하니 차시(此是) 만세불역(萬世不易)의 전(典)이라 하시다.

해월 최시형이 이곳으로 이거하는 데는 충의포(忠義包)의 주선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충의포는 예포와 덕포가 주축이었는데 예포의 상암(湘菴) 박희인(朴熙寅 : 德七)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해월 최시형은 이곳 앵산동으로 이거한 후 동학에 대한 관의 탄압이 계속되자 교인들에게 ‘이제부터는 경작으로 업을 삼아 천명(天命)을 기다리라’ 하면서 교인이 행동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한때 발급하였던 두령임첩(頭領任帖)도 중지하였다. 그러면서도 평안도의 홍기조(洪基兆) · 홍기억(洪基億) · 임복언(林復彦) 등이 해월 최시형을 찾아 뵙고 이 지역의 포덕이 많이 되고 있음을 보고하자 동학의 운세가 점차 북쪽으로 흘러감을 기뻐하면서 ‘군등의 수련할 바는 오직 대성대천(大性大天)이요 실행할 바는 오직 성경신(誠敬信)이니 영고화복(榮枯禍福)은 흥중에 두지말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한편 해월 최시형을 모시게 된 충의포는 일단 극심한 지목을 피하기 위하여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각지 두령의 왕래를 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해월 최시형을 뵈러 오는 두령들은 우선 상암 댁에서 지내다가 한밤중을 이용하여 해월 최시형을 배알할 수 있었다. 당시 상암은 해월 최시형이 있었던 앵산동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솔박리라는 곳에서 보필하고 있었다.

이해 4월 5일 득도일을 맞아 두령들이 여느 때처럼 여러 가지 제수를 마련하여 벽을 향하여 차리려 하자 해월 최시형은 제수상을 나를 향하도록 돌려놓으라고 하였다. 해월 최시형은 그동안 기념일이나 환원기도일, 제례는 물론 입교식에서도 제수를 벽을 향해 차려오던 것을 일체 타파하고 간소하게, 그리고 나를 향하여 제수를 받도록 설위법을 고친 것이다. 해월 최시형은 나를 향하여 위를 베푸는 이치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부모는 첫 조상으로부터 몇 만대에 이르도록 혈기를 계승하여 나에게 이른 것이요, 또 부모의 심령은 한울님으로부터 몇 만대에 이어 나에게 이른 것이니 부모가 죽은 뒤에도 혈기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요, 심령과 정신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사를 받들고 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손을 위하는 것이 본위이니 평상시에 제사하듯이 위를 베푼 뒤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심고하고 부모가 살아계실 때의 교훈과 남기신 사업의 뜻을 생각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옳으니라.

한편 해월 최시형은 앵산동에 지내는 동안 8월에 이르러 관의 탄압이 잠시 누그러지자 전국적인 교단의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두령들이 해월 최시형을 배알하고 첩지 수천 매를 받아 가 임첩을 발급하는 등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이천군 앵산동은 해월 최시형이 비록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지냈던 곳이지만 교단사에 있어서는 전통제례의 혁명인 향아설위법을 제정, 의식의 변혁을 가져온 중요한 곳이다.

앵산동(鶯山洞)의 행정구역은 현재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雪星面) 수산1리(樹山一里)이나 당시는 음죽군에 속하였다. 이천읍에서 남쪽으로 약 14km, 장호원에서는 서북쪽으로 약 10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흐르는 조그마한 실개천이 흐르고 있으며 남쪽에서 북을 향해 뻗어 있는 능선의 끝부분인 남쪽에 20여 호 정도가 산재되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 등성이에 올라가 보면 멀리 북쪽으로 해월 최시형의 묘소가 있는 여주 천덕산이 바라보이고 사방으로 트여 시야가 매우 넓다. 마을 뒤편에는 봉악재라는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이 이곳에서 봉화를 올려 기포를 알렸다고 한다. 이 봉화는 음죽·죽산·충주·청주·음성 등 지역의 동학군과 일시에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앵산동이란 이름은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마한 앵봉(鶯峰)이란 언덕이 있어 붙여졌다. 아마 이 언덕이 꼬꼬리의 형상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곳 앵봉에서는 꼬꼬리들이 많이 몰려들기도 하였다.

이천군 설성면 앵산동-새로운 제사의 모형 향아설위 제정 이천군 설성면 앵산동은 동학의 제2세 교조 해월 최시형이 포덕 38년 2월부터 7개월 동안 계시면서 교회 의식의 틀을 마련한 곳으로서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당시 유교사회의 전통제례의 의식인 향벽설위(向壁設位)를 혁신한 향아설위(向我設位)의 제례법을 제정, 실행하였으며 동학혁명 이후 교단의 조직을 재정비한 것 등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찾아가는길

- 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 강남 또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천행 버스를 이용한다. 이천에서 장호원 또는 금당(설성)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 수산1리에서 하차하면 된다.
- ②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 중부고속도로를 이용, 일죽 인터체인지에서 38번 국도를 따라 장호원 방향으로 가다가 행죽 삼거리에서 이천 쪽으로 10여 분 가면 된다. 앵산동 입구에는 통일관광 주차장이 있다



4. 송골 - 해월신사 피체지

1) 최보따리 비문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된 후, 최시형은 관의 추적을 피해 강원도 인제, 경기도 여주, 강원도 홍천을 거쳐 이곳 원주의 송골마을에 이주하였다. 당시 72세의 고령인 최시형은 의암 손병희를 비롯한 송암 손천민, 구암 김연국 등의 제자들과 여러 대 두목들을 대동하고 이 곳 송골마을 원진녀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제자들은 동서남북으로 접소를 설치하고 잡인의 왕래를 엄중히 감시하였으며, 해월 선생에게 용무가 있으면 우선 의암 손병희나 구암 김연국이 있는 접소에 먼저 들려 허락을 받은 다음 밤중을 이용하여 만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최시형은 1898년 4월 5일 최시형은 송경인이 인솔했던 경군에게 체포되어, 서울 서소문감옥에 수감되었다가 1898년 6월 2일 육군법원 교형장에서 사형되었다.

(비문은 무위당 장일순선생님이 쓰셨다.)



2) 원진녀의 집 복원

치악 고미술동우회가 이 장소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도로변에 1990년 4월 12일에 추모비를 세우고 최시형의 피체 날짜인 매년 4월 5일 추모제를 열고 있다. 1990년 11월 9일 그동안 피체지로 구전되어 오던 원진녀의 집터에 피체의 내력을 담은 표지석을 세웠다. 당시 최시형이 머물렀던 원진녀의 집은 6.25 때 폭격으로 없어졌으나 복원하였다.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안내

◎ 동학민족통일회 소개 ◎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이념의 사회적 구현과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 하는 목적으로 1991년 5월 11일 결성된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과 천도교로 이어지는 찬란한 한국 근대 민족주의 운동사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수호해 민족창달과 번영의 민족사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등장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동학과 천도교가 전개한 민족운동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수난사와 동일합니다.

동학은 위대한 민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백오십여 년 전 경주 용담정에서 수운 최제우 선생에 의해 시작된 동학(東學)은 당시의 국내외적 위기에 대처한 조선과 민중을 구원할 유일한 방책이었음에도 기득권의 논리에 젖은 지배층과 외세 결탁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탄압되고 또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도(道)를 주창한 이들을 탄압할 수는 있어도 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진리와 사람을 한울처럼 대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정신으로 각성된 민중은 드디어 1894년 갑오년의 동학혁명으로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선 것입니다.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동학이념은 우리 역사 오천년을 통 털어 최초로 각성된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개벽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는가. 정도를 외면한 무능한 조정은 일제를 끌어 들여 동학군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가 조선의 일제병탄이었습니다.

천도교는 문명개화운동과 3·1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동학혁명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동학 지도부는 동학을 천

도교로 개칭하고 민중계몽을 위한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낮은 민도를 끌어 올리고 하루빨리 문명개화의 대열에 참여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식과 각성된 민족의식은 1919년 또 한번 조선 땅을 흔드니 그것이 기미년의 3·1운동인 것입니다. 천도교 3세 교주인 의암 손병희 선생의 계획과 지도 하에 전개된 3·1운동은 세계 최초의 비폭력 무저항의 시위운동으로 가장 강력한 민족운동이자 인권선언이었습니다. 인도의 타고르가 조선을 ‘동방의 빛’이라고 한 이유도, 간디가 감동해 인도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택한 것도 모두 3·1운동의 영향입니다.

천도교 청우당은 민족통합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천도교는 청우당이라는 전위 단체를 만들어 교정쌍전의 의지를 실천합니다. 즉, 본격적인 사회운동 단체를 결성해 교(종교)가 아닌 정(정치)의 영역을 전담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우당은 일제하의 민중 계몽과 문화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청우당은 민족운동의 전위에 서서 자주독립국가를 완성하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분열되는 좌우 이념대립을 완화, 통합시키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과 외세에 결탁하는 세력들에 의해 국토는 분단될 위기에 처해지고 청우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등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현실이 되고, 청우당은 해체되고, 천도교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민족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단체입니다.

역사는 아직 우리 민족에게 더 많은 위대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오늘 동학민족통일회가 재등장하는 이유도 이 같은 선배들의 위대한 정신과 실천을 계승하고자 함입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과거 동학 천도교의 위대한 이상과 실천성을 계승하고 그들이 구상한 지상천국 이상사회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숙명을 지닌 천도교 활동

공간의 전위단체인 것입니다. 이에 동학민족통일회는 지금까지의 운동성을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운동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동학 이념에 입각한 인내천과 사인여천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에 시급한 과제에서부터 작은 손길이 필요한 영역까지 동학민족통일회는 씩없이 전진하는 사회단체로 활동할 것입니다.

◎ 동학민족통일회 강령 ◎

1. 동학사상을 기본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한다.
2. 사인여천의 윤리로 도덕적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3. 경천·경인·경물의 삼경사상을 적극 실천한다.
4. 자유평등평화의 민주주의 발전을 기한다.

◎ 동학민족통일회 주요사업 개요 ◎

통일기반 조성운동

- ▷정신개벽운동, 민족정기 선양운동, 인내천사상의 생활화 운동
- ▷삼경사상 실천운동, 근면·절약운동

종교간 화합 협력 운동

- ▷종교화합운동, 종교간 연대 사업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사업

- ▷월례통일강좌, 초청강좌, 통일순례, 특별연찬 및 강습회
- ▷초·중·고·대학생들을 위한 통일 학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 ▷북한 천도교 청우당과의 연락 및 교류, 북측 인사 초청
- ▷북한 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통일운동 민간단체와 공동행사 추진
- ▷남북한 민족성지 공동 개발 및 공동순례, 상설 연락 사무소 운영

생명·환경사업

- 환경학교 개설, 경물사상 실천운동, 자원 재활용 운동, 물사랑 운동
- 우리 쌀 사랑 운동

신문화 창조를 위한 신인간 운동사업

-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공동체운동

역사바로하기사업

- ▷일본의 역사 왜곡 바로잡기 교양, 계몽, 실천운동,
- ▷중국 동북공정 왜곡 시정 운동
-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시민협력, 역사, 교양 강좌

